

문제는 여성주의라는 말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여성주의인가일 것이다. 단일한 여성 범주 위에서 다른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것과, 그 범주 자체를 흐트러가며 소수자성으로 보편성을 재구성하는 것은 다르다.

- (정철충분) 아까까지

여성이 오랫동안 폭력과 차별을 겪을 때는 사회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도, 남성의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다루는 경향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 역동한 남성을 위한 에세이, 시, 수필

여학생의 '복지'가 증진될수록 여학생의 특성은 역설적으로 투명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된다. 여학생들이 '여성'으로서 이름 작위지킬 거부하는 것이 거부받지 않는 사회야말로 성평등에 가깝다.

— 남학생이 '여학생 복지'를 더 잘 할 수 있을까? 왜가리

컬러인의 외피를 두른 비용 절감 혜택은 병화롭고 아무에게도 거북함을 주지 않는다. 마치 전통적으로 바랄지 않게 여겨져 왔던 '여성상'처럼.

- 총어, 배틀그라운드, 레가리

상식의 수준에서는 이미 올바른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총학생회라면, 그 상식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차별의 문제를 지적해야만 무언가 의미있는 활동이 되는 것이다.

- 총액은 얼마 한 될 거야? 물고키

하필 성소수자가 표적이 된 이유는 물론 내부의 교리적인 근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소수자가 한국 사회에서 공격하기에 가장 만만한 존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호 줄이의 희망청탁에 대한 어떤 가설, 불고기

여성주의를 얘기하지만 다수가 아닌 소수의 얘기에 빠져서 본분을 잊은 애들 vs 대중적이고 다수를 존중하며 상식적인 애들이라는 '프레임'은 그대로다.

- 호 롬어와 대화 시도

아주 잠시의 정적일 것이다.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새 건물의 부피가
변듯하게 차오르면, 그래서야 난 눈물 흘리게 될까?

- 서서 자는 나무야, 박애주의자

그거 알아? 끊임 없이 자동차들이 흘러들던 청분 앞 도로가, 60년 전에는 개천이 흐르던 자리였다는 거.

- 늙은이의 슬픈 기록, 삼

새변된 제스처, 조소, 현실에 깔려 있는 언어들이 부유하는 비현실적인 공간, 이 방수된 공간 속에서 부질없이 보이는 일에 복수를 치는 시간이 가능해진다.

- 그 이후의 피습담추기, 박애주의자

차별은 정말로 모든 불행의 근원이며 없애버려야만 하는 절대 악일까?
'차별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주로 정체성이라고 부른다.

- 어느 반차별 활동가의 변화의 기록, 삶

대표되지 않는 당신은
언제 사라지는가

Stigma

Contents

Intro	03
I. Battleground	05
[기고] 억울한 남성을 위한 에세이	07
남학생이 여학생 복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13
총여 배틀그라운드	15
총여는 아마 안될거야?	17
호 총여의 흥망성쇠에 대한 어떤 가설	21
25대 총여학생회 (더 호)의 집행부원과의 인터뷰	23
II. 어디로 가는 것일까	33
서서 자는 나무야	34
[기고] 늙은이의 슬픈 기록	35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중간계,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의를 살아내는 법	35
- 그 '이후'의 퍼즐맞추기	40
[기고] 어느 반차별 활동가의 방황의 기록	43
- 수신헌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46
III. 불꽃놀이	47
말말말 불꽃놀이	47
Outro	46
후기	47

응답하라 학생사회?

작년 화제가 된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 이어 이번 가을에는 후속편 격인 '응답하라 1994'가 인기를 끄는 모양이다. 그리고 지금, 2013년의 연세대학교에서는 또 다른 90년대가 한 선본의 부추김에 이끌려 흥흥한 소문을 드리우고 있다.

1994년과 1997년 사이의 어떤 기억, 그 불온함을 호출하는 것은 그러나 오히려 그 불가능성만을 한껏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1996년 연세대 통일대축전, '운동권'에 대한 반감이 늘 근거로 삼곤 하는 이 유혈사태는 '학생사회'가 존재했음을 적의 유물이다. 백양로가 각지에서 물려온 학생들로 가득 메워지던 시절, 학교가 곧 광장이 될 수 있었던 시절, 과장된 사망감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들이 아직 씩 많이 남아있던 시대의 막다른 골목.

오늘날 중도 앞을 '민주 광장'이라 부르는 건 어색하다. 토론은 찬반의 동수를 갖춘 채 사회자의 우아한 진행이 곁들여질 때에만 해볼 만한 것이 된다. 박을 뺄 때는 목소리들은 시끄러워 방해된다는 편견에 부딪히거나, 공사판의 '바라케이트'에 가로막힌다. 총학생회의 시국선언에 항의하던 학내 세력은 총학생회의 '이념 편향'을 문제 삼았지만, 실제 그들의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학내 보수 세력의 성장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할 수 없게 되었다는 황당한 사실이었다.

이제 '학생'은 사회 모순 타파에 나서는 지성인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무능하며 미래조차 보장받지 못한 약자다. (혹은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개인적인 '자기계발'에 힘쓰는 '예비 인력'이거나.) 학생운동은 당사자운동이 되었고 운동의 목표가 학내 구성원의 편의라는 선계가 세워졌을 때 '운동권'이라는 낙인은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는 '비권'이 집권하면서 일어난 변화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다만 그들은 '복지'라는 의제를 선점했고 이는 곧 '사회'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최후의 방편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2010년이었나, 성 평등 교양 강의를 여는 교수는 늘 "스스로의 소수자성을 생각하라"고 주문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생각은 이미 모두에게 깊게 박힌 사고가 되어버렸는지 모른다. 다들 외롭고 힘들다고 말한다. 이제는 남성이 약자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를 갖고 있는 '차별받은 경험'을 중심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구성한다. 너도 나도 피해자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들은 연대하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가해자를 지목하려 애쓴다. 부당히 '약자로 행세하는' 이들로부터 약자의 자리를 빼앗아오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게싸움이 냉소의 가면 아래서 한창 열을 올리는 오늘.

매제를 준비하다 밤을 새우게 됐다. 따뜻한 게 먹고 싶어 중국요리를 골랐다. 전화번호를 찾으려 연화루를 검색하던 이가 누군가 올린 글을 보고 읽는다. 그날 회식 당면이었는데 중국요리를 시켰더니, 사장이 젓가락을 땀겨치며 해고시킨다고 화냈다는 내용. 어조가 경쾌해서 모두 웃었다. 자작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 그래도 슬펐다. 총학생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노상 평그린 얼굴의 계상원을 규탄하는 민원을 본 후라 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모든 권리가 소비를 매개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을 때 기대만큼 받지 못한 권리는 헛소리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고 마는 걸까.

우리는 곧 졸업한다. 누군가는 '사회로 나간다'는 말을 들지도 모르겠다. 총여학생회 선거가 무산된 시점에서 총여의 필요성을 묻는 이들에게 어떤 응답이냐마 전하기 위해, 선본은 아니지만 글을 쓰게 됐다. 여성주의의 안팎을 오가며 우리가 답야온 언어들이 부디 이후로도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날의 연세를 돌아보고 있다.

I. Battleground

[기고] 억울한 남성을 위한 에세이

남학생이 여학생 복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총여, 배틀그라운드

총여는 아마 안될거야?

호 총여의 흥망성쇠에 대한 어떤 가설

25대 총여학생회 <더 호>의 집행부원과의 인터뷰

학기 초부터 이른바 '논지당 사건'을 빌미로 학내 여성주의에 대한 공격이 거셌다. 처음엔 성평등센터와 반성폭력학칙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등, 남성 인권을 유린한다는 등 주장하는 자료가 중도 앞에 붙었다. 그러더니 '컴퓨터불'이라는 단체에서 백양로 펜스를 자신들의 플랑으로 도배했는데, 그 중엔 성평등센터와 나임윤경 교수에 대한 플랑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역차별에 반대하는 연세대학교 남학생 일동'의 '남학생에게 총여학생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는 자료가 붙었다. 성평등센터와 반성폭력학칙에 대한 시비걸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총여학생회를 물고 늘어졌다. 이들은 총여학생회가 '논지당 사건'을 묵과하고 여학생 복지를 실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여학생회를 비판했다.

한편 '컴퓨터불'이 총학 선거에 나온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지면서, 호 총여와 몇몇 학내 여성주의 활동단체들은 이들이 '총여 폐지' 공약을 걸고 나올 것을 우려했다. 일련의 공격이 촉발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총여를 지지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래도 총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 혹자는 총여 폐지 위협 앞에서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그동안 명시적으로는 여성주의를 말한 바 없었던 호 총여에서 '연세 여성주의 모임 간담회'와 '반성폭력 학칙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호 총여와 엘리스는 '우리가 전하는 사과'라는 반성폭력 문화제를 함께 주관했다. 그러나 학내 여성주의에 대한 공격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호 총여를 비롯한 학내 여성주의 활동단체들은 총여 선거 출마를 고민했지만, 아무도 선거에 나오지 않았다. 선거에 나가기 위한 역량 부족이 그 이유였다. 그렇게 해서 총여 선거는 무산됐다.

학내 여성주의에 대한 공격은 남학생의 총여학생회 선거권/피선거권 요구라는 총여학생회 형해화 시도로까지 이어졌고, 총여학생회 선거는 무산됐다. 상황이 이쯤 되니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우선 든 생각은 성평등센터든, 반성폭력 학칙이든, 총여학생회든, 그게 누구든,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든 극단적 페미니즘과 역차별이라 몰아가는 자들의 공격에 깔린 뿌리 깊은 여성 혐오에 대한 것이다. 또한 이에 맞서는 대응 방식으로서 여성주의 혹은 여성운동의 대동단결이라는 전략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민은 학내에서 여성주의 혹은 여성운동을 사고할 때 아무래도 우회하기 어려운 총여학생회의 존재에 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여학생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지,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혹은 유효한 형식으로 전파될 수 있는지.

지난 3년 동안 호 총여는 총여학생회를 철저히 '여학생'을 대표하는 기구로 사고했다. 대의민주주의의 본령에 맞게, 여학생들의 투표로 선출됐으므로 여학생의 집합적 이익, 즉 '여학생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생물학적 동일성에 기반을 둔 견고한 여성 범주를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호 총여의 '여학생 복지'는 어쨌든 여학생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을 법한, 생물학적 여성의 고유한 특성으로 여겨지는 것들로 한정됐다. 이렇게 호 총여는 여/남의 분명한 구도를 만들면서도 동시에 남녀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남학생 집행부원을 뽑고 끊임없이 남학생의 참여를 호소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이 역시 남학생 일동에 게는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이 아니라 학우 모두가 공감할 수 없는 '극단적 페미니즘'이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여성주의와 여학생 복지를 모두 쟁기겠다는 '대중적 페미니즘'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를테면 총학이 정치와 복지를 아우르는 책 하듯이, 총여에서도 여성주의를 말하면서 여학생 복지도 쟁기겠다는 식이다. 요컨대 이들은 '극단적이고 고립된 예전 총여'와 '여성주의를 거부하는 호 총여' 사이에서 어떤 절충점을 찾으려는 듯하다. 하지만 호 총여 역시 3년 차가 되면서, 여성주의와

그동안 두었던 거리를 좁혔다. 게다가 '더 호'는 '여성운동은 대중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나름대로의 활동을 벌여왔다. 이것이 '대중적 페미니즘'이 아니면 무엇일까? 호 총여 모델의 실패는 단순히 후보자나 선본원의 수와 같은 역량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여성주의라는 말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여성주의인가일 것이다. 단일한 여성 범주 위에서 다른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것과, 그 범주 자체를 흠트려가며 소수자성으로 보편성을 재구성하는 것은 다르다. 예를 들면 이성에 뒤에 수많은 정체성을 병렬적으로 늘어놓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과 이성애중심성 자체를 문제 삼고 이를 뒤엎으려는 것은 다르다. 이 차이는 여성주의와 여성주의가 아닌 것의 차이만큼 큰 차이이다.

대의민주주의와 총여학생회의 물리지 않는 긴장, 대의제에 의해 조건 지어지는 여성 범주를 안고 가면서도 이러한 긴장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소수자 장치를 펼쳤던 모델은 선거라는 것으로부터 통과하지 못했다. 대의민주주의와 총여학생회 사이의 어긋남을 애써 끼워 맞추며 단일한 여성 범주를 끝까지 밀고 나가던 모델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이제 총여학생회라는 틀 자체가 막다른 골목에 치달아 버린 것 같다.

by. 아까끼

억울한 남성을 위한 에세이

- 2013년 5월 '논저당 사건'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남성은 단연 '억울한 남성'이다. 뉴스에서도, 예능에서도, 웹툰에서도, 백양로에서도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인지 교육을 들었을 뿐인데 잠재적 성 범죄자로 취급당하는 남성, 군대를 다녀와도 가산점 하나 받지 못하는 남성, 데이트 비용을 다 내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남성,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역으로 차별받는 남성, 연애도, 섹스도 할 수가 없어 강제순결을 지키며 대마법사가 되어야 하는 불쌍한 남성 등 레퍼토리는 무궁무진하다. 어떤 면에서, 저널리스트 해나 로진이 주장했던 것처럼, 남성은 곧 '종말'할 것 같이 보인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남성은 언제나 피해자였다. 90년대 '간 큰 남자 시리즈'나 IMF 시기 '남편 기 세워주기 운동'은 물론이고 2000년대 부권상실론, 고개 숙인 남자, 남성인권 보장위원회, 2009년 루저의 난, 2013년 논저당 사건까지 억울한 남성의 계보는 도도히 쓰이고 있다. 물론 젠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남성 피해자론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는 잘 알고 있다. 직업 수행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성별은 여성에게만 붙여지고('여'의사, '여류'작가, '여'교수, '여'대생), '팔 바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남녀성비격차(a.k.a 여아 낙태)는 전혀 없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 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성/폭행이나 살해당할 확률에 있어 압도적인 젠더 차이가 존재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나 성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봐도 여전히 남성이 더 많은 권력과 자원을 분배 받고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여성이 오랫동안 폭력과 차별을 겪을 때는 사회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도, 남성의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다루는 경향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살펴보면 솔직히 아쉬울 것도 없는 녀석들이 왜 맨날 억울하다고 징징대는 거야라는 생각도 든다.

마치 '북한인권'이 그러하듯, 남성 피해자론은 생산적인 논의를 봉쇄하는 장치로 이용되곤 한다. 그러나 지배 남성의 입장에서 특권을 성찰하기란 단순한 작업이 아닐 수 있다. 당사자가 될 때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차별과는 달리, 특권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이 자신의 특권을 알아차리는 일은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 연구자 리키 윌킨스에 따르면, '특권이야말로 세계에서 개인의 존재 자체를 기입하는 방식 그 자체이다'(2004: 117). 특정한 범주로 인해서 주변화되고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범주의 강력함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남성을 '자신의 특권은 전혀 성찰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는 이들로 재현하는 것은 매우 문제적이다. 이러한 재현이 남성이 갖고 있는 특권을 박탈하거나 다른 젠더 존재에게도 나눠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도, 정치적으로 올바르지도 않지만, 무엇보다 남성 일반을 단일한 범주로 상징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회구성론을 따르는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 범주가 선형적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은 일종의 신화에 불과하며 사실 이원 젠더 체계 자체가 특정한 권력의 효과라고 주장한다. 젠더는 그 자체로 두 가지 종류의 해부학적 실체가 아니라,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국가, 나이, 장애 형태 등이 상호교차하는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 피해자론을 분석하는데 더 적절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남성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왜 '억울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그 감정이 호명하는 남성 젠더는 무엇일까? 그 호명에 응하지 않는 이들은 남성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일까? 억울함은 어떤 집단과의 비교를 가정하는 것일까? 무엇을 통해서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범주에 머물러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피해자성이 남성 범주 자체를 직조하는 것은 아닐까?

이 글은 2013년 봄에 있었던 '논지방 사건'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남성 젠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의미화되고, 무엇을 기반으로 구성되는지를 간략하게 탐색한 기록이다. 개인적으로는 '논지방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작업에도, 그로 인해 촉발된 논쟁에 대해서도 매우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남성 젠더의 구성을 정후적으로 드러내는 텍스트로 분석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든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어떠한지와는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일으키는 '젠더 트러블'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여성혐오를 통해 구축되는 남성 범주

논지방 사건을 되짚어보자. 이 사건이 왜 이슈가 되었을까? 논란의 문을 연 게시글 '우리학교 교직원 수준이 이 정도 인가요?'의 조회수는 현재 3만이 넘었다.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흥분시켰던 것일까? '교직원 수준'이라는 명명이 사건을 정치하게 다루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문제의 초점을 흐린다는 사실을 자치하더라도, 이 문제는 분명 교직원의 불친절이나 남학생 휴게실 확보 문제와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아도, 여학생 휴게실을 관리하는 것은 해당 교직원의 업무다. 예를 들어 우리학교 입학 논술시험장을 지켜야하는 교직원이 있다면, 그/녀에겐 누군가가 그 장소에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공적인 업무인 것이다. 왜 어떤 업무는 공적인 것으로, 어떤 업무는 조회수 3만을 달성하는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또한 여학생들의 전용 공간이 있다는 것이 '남학생들도 쓸 곳이 없다'는 소모적인 구도로 연결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현 남성 징병제의 문제가 군 가산점이나 여성 징병제가 아닌, 선병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군인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식, 혹은 모병제 논의 등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과 같다.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후에 만난 한 친구는 글쓴이의 불쾌함을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친구는 지하철 계단을

올라갈 때 앞에 있는 여자가 치마를 가리는 모습을 보면, 자기를 잠재적 가해자로 대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진다고 했다. 친구는 자신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울하다는 감정이 든다고 말하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는 나를 강하게 비난했다. 치마를 입은 사람을 여성 범주에 집어넣는 방식은 문제적이었지만, 글쓴이가 자신이 '오인'되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나는 글쓴이가 들었던 '남학생들은 그냥 아무 곳이나 앉거나 누워서 쉬면 되지 않느냐' 교직원의 발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핵심은 그 발언이 '키 180cm 이하의 남자들은 무지 아닌가요?'라든지 '(군대생활) 2년은 너무 짧고요, 3년 이상이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체계 속에 놓여 있었다는 데에 있다. 논지방 사건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촉발한 이유는 교직원의 발언이 매우 젠더화된 방식, 즉 개념 없는 여성의 막말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공장 시간에 설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남하우에게 '남자 새끼가 뭘 그렇게 따져, 그냥 중도에서 쳐 자'라고 말하는 동료 남하우, '여자들은 키 큰 남자 좋아해, 키 작은 애들이 마시는 공기는 어떠냐?'고 놀리는 (할창 없이) 신장 187cm의 '위너' 남성, 뽕깡이들이 날뛰고 있는데 군기가 빠져가지고라며 의무복무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예비역 남성이나 극우단체 활동가를 떠올려보자. 이들의 발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며, 논지방 사건을 접했을 때와 다른 차원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

퀴어 이론가 이브 새지릭은 남성 간 욕망이 동성사회적인 토대, 즉 남성에게 부여된 특권을 유지시키는 연대를 통해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브리스투우, 2000: 275). 남성의 동성사회성은 동성애혐오와 여성혐오를 필수적으로 요청하는데, 전자는 성적인 관계를 통해 남성

내부의 위계가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후자는 여성의 거래를 통해 지배적인 위치를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대해 페미니스트 우에노 치즈코는 '남성 동성사회성이 여성의 차별뿐 아니라 [적합한 남성]과 '탈락한 남성' 사이의 경계선의 관리와 끊임없는 배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남성됨'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가를 역으로 증명한다'(2012: 37)고 지적한다.

같은 발언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남성 범주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 간 연대를 위협하는 차이와 그로 인한 여러 층위의 감정이 비가시화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여성 화자와는 달리, '같은' 남성 화자의 발언은 남성 동성사회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안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이성애규범적 매트릭스에서 만들어진 여성과 남성의 차이보다 남성 범주 내부의 차이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는 남성 간 연대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남성 범주가 호르몬이나 염색체, 외부 성기 형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인위적인 방식을 통해서 맥락적으로 구성된다.

앞선 논의를 참조하면, 논지방 사건에서 등장한 남성 범주는 여성혐오를 조장하면서 특정한 이들을 '남성/피해자'로 호명하는 정치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로서의 위치를 박탈당하는 여성은 남성 간 연대를 수호하기 위해서 철저히 배제된다. 몇몇 이들이 나임윤경 성평등센터 소장의 말을 맥락 없이 인용하면서 '어디 학생이 감히 선생에게 대드냐'라는 '망언'을 했다고 성토했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성평등센터 교직원의 발언에 대한 이들의 태도야말로 더 지독하고 낮은 수준의 혐오와 차별을 동원하는 메카니즘('어디 여성이 감히 남성에게 대드냐')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이기 때문에 성평등센터 교직원과 소장에게 분노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하는 바로 그 수행을 통해 남성 범주가 구축되고 남성 간 연대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논지방 사건이 페미니즘 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해당 교직원이 성평등센터에서 일한다는 점과 페미니스트 '나임'윤경 교수가 소장이라는 점은 사건의 어그로 수치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다. 성 평등은 지구 역사에서 페미니즘이 최초로 제기했던 문제로, 성평등센터 교직원이라는 위치는 한국사회의 페미니스트 낙인을 그대로 소환하기 때문이다. 지면 관계 상 짧게 적으면, 논지방 사건에 분노하는 이들이 성평등센터가 여학생만을 위한 곳으로 사실상 '성차별센터'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에게 성 평등은 규범적인 남성 범주의 재구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만큼은 지적하고 싶다. 성평등센터는 바로 여성혐오를 통해 구성되는 바로 그 남성 간 연대를 해체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난감한 피해자 정치학

남성 범주의 구성 과정에서 남성이 '피해자'로 위치된다는 점은 무척 인상적이다. 피해는 누구나 확인하고 공감하는 무뎠던 진실이 아니다. '피해'는 어떠한 상황을 '피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맥락과 상징체계 없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 피해가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피해를 받았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무엇이 피해로 다루어지는지, 어떤 면에서 피해라고 할 수 있는지, 누구의 입장에서 피해인지, 그것은 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등을 살피는 데에 있다.

피해의 사회적 구성을 염두하면서 '피해자로서의 남성'을 찬찬히 살펴보자. 가까운 예로 11월 4일 '역차별'에 반대하는 연세대학교 남학생 일동이 개제한 자보가 있다. 이들은 총여학생회를 극단적 페미니즘, 성 역차별의 상징, 페미니스트들의 집단 이기주의, 여학생 중심의 폐쇄성 등으로

제한하며 '총여학생회 임후보(예정)자가 남성 역차별 해소'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렇게 무시무시한 총여학생회를 만들고 지금까지 꾸려온 이들은 모두 괴물인가. 실을 정도의 글쓰기에 황당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면에서 이 자보는 총여학생회로 상징되는 페미니즘이나 여성 젠더에 대해서 '남학생 일동'이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자보가 특히 흥미로운 점은, 정작 이들이 받았다고 말하는 '역차별'이 무엇인지 자보에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남학생에 대한 피/선거권 요구나 선본 국장급 이상 구성원 90% 이상 남학생 포함 요건 명문화 등의 명시적인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에 있다. 차별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고, 그것이 누구의 입장에서 그러한지, 왜 선거 시기에 이를 공론화하려고 하는지는 설명은 없고 '역차별을 받았다'는 것만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보의 핵심은 역차별 상황을 '총여학생회'가 인정받고 받아들이야 한다는 데에 있다. 도대체 '남학생 일동'이 받은 역차별과 총여학생회, 더 정확하게 총여학생회가 가리키는 여성 범주나 페미니즘과 무슨 상관인걸까?

이 대답을 찾기 위해서 조금 장황하게 서술하려고 한다. 이 글에서는 남성 징병제 논쟁과 데이트 비용 문제를 주로 다룬다. 이 둘은 끊이지 않는 '떡밥'으로 남성 범주의 구성을 매우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결론을 먼저 쓰면, 남성의 피해자성은 기존의 권력관계를 가시화하고 이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를 더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기능하며 남성 범주를 구성하고 남성 간 유대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한다.

먼저 징병제 논쟁을 살펴보자. 흔히 남성 징병제 논쟁의 구도는 중요한 시기에 강제적으로 2년 동안 '땀' 흘리고 사회화·인정이나 제도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남성과 후방에서 편히 놀고 있으면서 남성에게 고마워하는 못할망정 '개처럼

국가나 지키라'고 망언하는 여성으로 설정된다. 여기서 남성의 군대 경험은 '피해'로 재현되며, 징병제는 '역차별'의 상징이 된다.

하지만 양심 운운하면서 군대 거부하는 '사이비 신도'와의 관계에서 군대 경험은 '명예로운 남성'의 징표로 간주되며 '남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례가 된다. 군대가 얼마나 '몸쓸' 제도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제일 반대하는 것은 군대가 한국사회에서 남성 젠더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아직' 가지 않은 '비필'은 존재해도 가지 않는 '비필'은 한국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으며, '비필'은 남성 간 연대에서 탈락한 비-남성의 상징이 된다. 군필 남성 집단에게 중요한 것은 군대를 준비하며, 복무하면서, 전역한 이후에 겪게 되는 '피해자 경험'을 정치적인 문제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군대 경험에 대한 비필의, 특히 여성의 인정인 셈이다. 결국 '피해'라고 쓰고 (잠재적) 이성애 관계에 있는 여성의 인정이라고 읽는 상황이 발생한다.

데이트 비용 논쟁 역시 마찬가지다. 이성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비용 논쟁은 '내 생일엔 명품가방, 내 생일엔 십자수냐?'로 대표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이성애 연애 시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것은 결혼 이후에 여성에게서 가사 노동, 돌봄 노동, 성적 서비스 노동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이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을 확보한 역사적 상황 역시 이를 가능하게 했다.

이 구도가 붕괴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먼저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진 신자유주의 시대에 연애로 인한 소비는 철저하게 계급적으로 구획되었고, 결혼을 전제한 연애가 사라지고 자유연애시장이 열리면서 연애 시기의 투자를 결혼 이후의 무보수 노동으로 보상받는 일이

불투명하게 되었으며, 페미니즘의 발전으로 인해 관계의 성적 평등에 대한 감각이 자리 잡게 되는 일련의 흐름이 그것이다. 데이트 비용 논쟁은 여성과 남성의 이성 연애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교환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되면서 발생한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나이브하게 이야기하면 여성과 남성이 각자의 경제적 수준에 맞추어서 비용을 부담하면 데이트 비용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성애 연애 시장 자체가 젠더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하다. 데이트 비용에 대한 논쟁은 대체로 남자친구의 부담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성과 여자친구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너무 벼참 남성을 전제로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력적인 여성상으로 부각된 '개념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거나 과도한 소비를 통해 남자친구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여성을 가리킨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개념남'이라는 말은 거의 쓰이지 않거나 연애와 상관없는 맥락에서 쓰인다는 점은 이원 젠더 체계에서 젠더가 여성과 남성에게 갇지 않다는 점을 함의한다. 또한 연애 관계에서 매력적인 '훈남'은 과감한 소비를 통해 여자친구를 만족시키는 이들이 되는데, 여기서 남성 범주는 계급을 따라서 구축된다.

그렇다면 왜 이성애자 남성들은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는 이성애규범적인 남성 간 유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규범적인 남성 범주에서 탈락되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남성 간 유대는 여성의 교환과 소유를 통해서 형성되며, 이들의 동성사회화는 내부의 차이와 성적 욕망을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남성은 여성을 책임질 수 있는 이성애적 주체가 아니기에 결과적으로 '비-남성'으로 간주된다. 또한 여자친구에게 여유롭게 돈을 쓸 수 있는 규범적인 남성과 그렇지 못한 비-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남성 간 유대를 위협하는 긴장을 발생시키는 데 반드시 무화될 필요가 있다. 이들의 '피해'가 해소되기

위해 개념녀가 등장해야 하는 것은 이들이 항변하는 '평등'이, 여성과 남성이 아닌, 여성을 대개한 남성들 사이, 비-남성과 규범적인 남성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기호, 2011: 161).

같은 맥락에서 '무개념 김치녀'로 인해 고생하는 이들이 연애를 끝낼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학력이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수입이 없어도 여자친구만 있으면 '남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치즈코, 2012: 74-75).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성이 없는 남성, 여성과 사귀지 않는 남성, 자신이 '여성'이 되는 남성으로서 동성애자는 남성 위계에 최하층을 차지하지만 성 소수자 문제가 인간의 영역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남성 간의 놀림은 '게이'에서 '동정남', '고자', '대머리사'로 옮겨지게 된다. 전자와 후자는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둘 다 비-남성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정리하면, 데이트 비용 문제로 호소하는 이들의 '피해'는 젠더 차원에서 자신의 존재가 비규범적으로 다루어진다는 불안에서 기인한다. 기존 이성애규범적 연애 문법에 도전할 수 없는 이들이 남성 범주에서 박탈되는 데서 비롯되는 불안을 여성에게 투사하면서 '피해'가 구성되는 것이다. 결국 논쟁의 사건에서 형성된 '피해자'로서의 남성 젠더 범주는 기존의 이성애규범적 이원 젠더 체계를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역차별에 반대한다면서 남학생 일동이 적은 글에서 역차별을 총여학생회가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남성 범주를 다시 강화하고 남성 간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남성은 피해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한 특권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에 가깝다. 비-남성 존재가 여성을 통해서 정상화된다는 것은 남성 범주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젠더 범주가

불안정한 막 그만큼 여성혐오가 작동한다고 할 때, 논지당 사건이 불러일으킨 엄청난 열기는 매우 징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페미니즘

지금까지 논지당 사건을 둘러싼 논쟁에서 구성된 억울한 남성에 대해서 분석했다. 이 외에도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호명하는 정치에는 반대하는 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인권 유린, 피해자성, 억울함 등으로 보면 남성을 소환하는 모순을 반박하는 일, 동성애혐오의 측면에서 남성 간 유대의 구성을 살펴면서 이원 젠더 체계와 이성애규범의 상호교차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작업 등은 아쉽게도 생략하게 되었다. 허겁지겁 달려온 이 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억울한 남성은 저때 남성의 다른 얼굴'이라는 것이다.

억울한 남성에 대해서 주재님께 한 마디를 보태자면, 규범적인 남성 범주에서 탈락된 비-남성으로 남성 간 유대에 진입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놓인 젠더 상황을 성찰하고 긍정할 수 있는 언어와 준거집단을 만날 필요가 있다. 탈락한 비-남성끼리 '우리도 남성이야'라며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비규범적, 반사회적, 매력 없고 찌질한 상황을 다르게 의미화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남성의 억울함을 '힐링'할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페미니즘이다.

페미니즘은 근대적 '인간'이 인류 보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럽 식민본국의 백인 중산층 이상예자를 성인 남성을 가리킨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등장한다. 페미니즘은 물성적인gender-blind 휴머니즘을 공박하면서, 세계를 설명하는 단일한 방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편', '규범', '정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고 역사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주장해왔다. 결과적으로 페미니즘의 목표는 역사의 무대에서 지워진 여성, 비 이상예자, 하층 계급, 비 유럽인 등을 무대 위로 올리는 일,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이들을 포괄하는 보편, 더 많은 예외를 포섭한 정상, 더 합리적인 규범, 더 추상적인 본질을 추구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보편, 정상, 규범, 본질이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도전하면서 범주와 경계에 대한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것에 가깝다.

남성 범주를 여성혐오와 동성애혐오, 피해자성을 중심으로 구획하는 일은 비-남성이 겪는 억울함을 결코 해소할 수 없다. 페미니즘 역시 이기적인 여성우월주의나 남성을 짓밟고 착취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계속되는 불안이나 억울함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일이 해결의 실마리라면, 바로 그 때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놓여 있는 특권과 규범의 자리에서 떠나 진정한 의미의 '성 평등'을 향해 가는 여정이 될 것이다.

by. 페미니스트 시우

참고문헌

- 임기호, 『신자유주의 이후, 새로운 남성성의 가능성/불가능성』, 『남성성과 젠더』, 서울: 자음과모음, 2011
 무어노 치즈코,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서울: 온몸나무, 2012
 조셉 브리스토우, 『섹슈얼리티』, 서울: 한나레, 2000
 Riki Wilchins, 『Queer Theory, Gender Theory』, New York: Alyson Books, 2004

남학생이 '여학생 복지'를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상한 자료가 도착했다. 불만에 찬 남학생에게서 새어나오는 총여 폐지론, 한 두 해 세 듣는 소리는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달란다. 총여학생회 '설립 본연의 취지'마저 운운하는 자보의 기사에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정말 '여학생 복지'가 총여학생회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남학생이 나서서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선 떠오르는 불쾌한 대자부는 여성잡지나 블로그 언저리서 보이는 연애조연 류의 남녀드립이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는 여성은 남성에게 쉬이 다가갈 여자를 주지 않는다는 말, 그러니 일부러라도 부탁을 하고 남성에게 의지하는 법도 익히라는 말, 여성들이 어려워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겠다는 남성들의 '원절'이 여학생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남학생 연대의 결의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일까.

'여학생 복지'가 뭔데?

자보를 쓴 남학생들이 '여학생 복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불명확하다. 그만큼 속단할 수는 없지만, 남학생의 입장에서 여학생에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학생 당사자들로 구성된 조직이 이슈화해온 사안들보다 실제 여학생의 삶의 조건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으리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다양한 개인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성문화가 타자로서 구축해온 '여학생' 스테레오타입의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오로지 여학생에게만 필요한 '복지'는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복지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불변 없이 개인의 삶을 살아갈 권리이지 성별 등의 특정 정체성에 묶여 집단의 내부를 공고히 할 소속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학생의 '복지'가 증진될수록 '여학생'의 특성은 역설적으로 투명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된다. 여학생들이 '여성'으로서 이름 지워지지 거부하는 것이 거부 받지 않는 사회야말로 성평등에 가깝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총여학생회가 여성이라는 범주를 해체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면, 어째서 여학생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고 그들의 투표로 정당성을 얻는 것일까.

총여학생회는 무엇을 위해 싸우나.

대의제 정치 제도 속의 총여학생회는 여학생을 대표하는 자치기구로서 한국사회와 학내의 남성중심적 문화를 성찰하고 여학생의 권익을 보장해 구성원들 간의 성평등을 이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총여학생회의 존립근거가 되는 '여학생'이란 종중 2로 시작되는 주민번호 뒷자리로서 증명되곤 하는, 사회적으로 호명된 정체성이다. 이 정체성은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임의로 부여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차별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여성운동 조직체로서 총여학생회는 여성으로 호명된 주체들이 현재 처한 억압을 벗어나 새롭게 정체성을 모색하도록 격려할 의무가 있다. 쉬이 가려지고 무시되어 왔던 여학생의 경험을 드러내고, '보편'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남성의 기준을 제프리며, 실존하는 차별과 폭력의 가능성에 대항하는 것. 이런 활동을 위해 총여학생회는 답론의 장을 열고 제도개선을 주장하며, 정체성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을 조직해낸다. 총여학생회가 생물학적 여성의 인권 외에도 장애인,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다른 비주류적 정체성에 대한 차별 및 '정상성'의 강요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만하고 본색을 드러내시지 그래?

이미 남학생이 선본원이나 집행부원으로서 총여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남학생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라는 요구를 관심 있는 학생의 관심을 보장하는 길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의 총여가 '설립 본연의 목적'인 '여학생 복지'를 충분히 수행하지

총여, 배틀그라운드

못하고 있고, 그 원인이 여학생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페세성'이라는 주장은 소수자 정치의 장에 기득권인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성의 문화를 들여놓고 여성이나 다른 소수자성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다. 총여학생회의 기조에 의심을 품고 이의를 표하는 것은 자유다. 다만 그 동기는 명쾌히 밝히길 바란다. 현재의 총여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어설픈 정론 흥내 대신, '논지당 사건'으로 표상되는 학내 '여성주의권(團)'에 대한 반감과, 동일한 학생회비를 냈으니 여학생만 여학생휴게실을 쓰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하나 더 갖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기적 계산에 따른 소비자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라는 말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은 다른 글에서 다시 쓰려고 한다. 설득하고 싶으나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을 수 있는 몇몇 전제들이 걸려 복잡한 문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함을 하나하나 들추어볼 노력조차 없이 다짜고짜 총여학생회를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극단적 페미니스트'로 매도해버린 '역차별에 반대하는 남학생 일동'의 안이함에는 정말이지 혀를 내두르게 된다. 논쟁을 걸려면 적어도 프레임 설정만은 제대로 해주었으면 한다.

by. 왜가리

페미니즘의 국내 번역어는 '여성주의'다. 공동체주의가 공동체의 입장을 중시하고 개인주의가 개인의 입장을 중시하는 것이니 여성주의는 '여성'의 입장을 중시하는 것일까. 아니면 마르크스주의, 프로이트주의에서처럼 '여성'의 사상을 이어나가자는 것일까. 그럼 여기서의 '여성'이란 대체 뭐란 말인가. 다른 '주의자'들에 비추어보았을 때 여성주의자란 많은 모호하게 여겨진다. 그뿐 아니라, '여성'의 반대항이라고 생각되는 '남성'의 자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 같은 인상마저 준다. 사회에서 여성이 차별받는다 하고 하지만 대학 문밖은 남녀 모두에게 열려있고, 동등한 기회를 거머쥔 채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 같은데 대뜸 스스로의 '가해자성'부터 들어켜보라고 주문하다니, 지나친 것 아니냐. 싶은 것이 여성주의에 오해를 품은 남학생들의 주된 입장일 것이다. 이에 일부 공감을 표하며 여성혐오 이전에 여성주의혐오가 있어 둘을 엄연히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 호 총여가 들고 나온 용어가 '양성평등'이다. 여성주의를 내세우지 않는 총여학생회 활동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알아보겠다는 야심은 그러나, 여성의 범주를 확정해 혜택을 제공하려는 모든 시도가 여성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역차별'로 치부되는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남학생들은 여전히 여학생휴게실의 존재를, 총여학생회에 쓰이는 학생회비의 비율을 문제 삼는다. 만일 학내에서 여학생이 약자라는 합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면 모두가 낸 돈 중 여성 자치를 위한 예산이 따로 배분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호 총여는 여성을 피해자의 입장에 놓는 것이 곧 남성을 적대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을 강조하지 않는 '여성운동'을 주장함으로써 '여성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자체를 얻게 만들어버렸다. 싸우지 않는 운동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이유다.

여성의 경험과 여학생의 경험.

'총여학생회'라는 대의기구는 학생회를 포함해 기존의 자치단체가 '보편'을 자처하면서도 실은 남성의 입장과 문화를 대표하고 있을 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여성과 남성의 비대칭한 지위에 대한 인식 없이는 여학생이 선거권/피선거권을 하나 더 갖는다는 이중수에 논의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총여학생회는 여학생이 학내에서 받는 불편함을 고발하고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규명할 의무가 있다. '남학생 일동'의 자보에서 무의미한 것으로 비난받았던 '생리대 공동구매' 역시도 처음에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고안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생리대는 여성의 필수품인데, 값이 지나치게 비싸 여성의 생활에 부담을 지우고 있음에도 이런 사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총여가 문제시한 지점이었으리라.

그러나 생리대 공동구매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할인 등 여성 건강의 문제에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은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데에는 취약하다. 여성의 생리대가 필수품이라는 점, 자궁경부암이 여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에 의미는 있겠지만, 비용 차감 없이는 어떠한 의제설정도 호소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상황인가 생각해 보면 답답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 과거 큰 여파를 불러일으켰던 연세대학교의 생리대공급제 인정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당시 총여가 학교 당국과의 정치적 투쟁을 통해 얻어낸 성과물이자, 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맞서 여성이 겪는 고통을 드러내는 데 최소한의 합법성이라도 확보하겠다는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기업체와 사전 협상을 통해 비용을 깎는 방식은 누구와의 투쟁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캠페인의 외피를 두른 비용 절감 혜택은 평화롭고 아무에게도 거북함을 주지 않는다. 마치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져 왔던 '여성성'처럼, 여대생에게 섹스란 어떤 경험인지, 자궁경부암 예방에서 남성이 백신을 맞는 편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지 하는 이야기는 나올 틈새도 없다.

총여는 아마 안될거야?

— 지난 총여학생회들의 지난했던 활동들을 되돌아보며

1.

“총여학생회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인가요?”

“남학생이 낸 학생회비가 왜 총여학생회 예산에 들어가나요?”

“이거 역차별 아닌가요?”

총여학생회에 대해 학내에 퍼도는 의문들은 예나 지금이나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그 의문에는 총여에 대한 불만과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 그리고 무관심이 조금씩 섞여 있다. 그동안의 총여학생회들이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사실 총여학생회의 기초와 주요 사업, 활동들이 모두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이러한 의문들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총여학생회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의문들을 떨쳐버리고, 다수의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 있겠다. 첫째는 현재 학내 자치공간들이 너무나 없어 전 체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학생들에게 대학은 이제 공적인 자치공간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학점을 관리하고 스펙을 쌓는 공간, 혹은 취미활동과 연애 등의 개별적인 관심사를 쫓는 공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총여학생회의 활동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해도도 낮아지게 된다. 둘째는 총여학생회의 존재가 총학생회 등 여타 학생회에 비해 생소하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므로, 대한민국에 있는 대다수의 집단에서 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의기구는 일단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특히 학생회라는 조직은 초·중·고등학교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는 지극히 상식적인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여학생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학생회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2.

현재의 The 호(h) 총여학생회는 3년 전에 처음 등장했던 연세 호(h)의 기초를 잇고 있다. 당시 연세 호(h) 선본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하여 기존에 있었던 총여와는 다른 답을 제시하면서 등장하였다. 이 선본이 주장했던 총여의 존재의 의란, 과거에 비해 여성 인권이 상당히 신장되었음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여성차별에 저항하며, 남녀의 조화와 평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총여가 학내에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로 ‘실질적 여학생 복지’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총여가 가지고 있었던 답보다 상식적이었고 이해하기 쉬웠으며, 여학생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연세 호(h) 선본은 여학생 다수의 표를 얻어 당선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연세 호(h)의 기초를 이어 지난 3년간 운영되었던 총여학생회(이 총여학생회를 편의상 호 총여라고 지칭하기로 하자)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의문들을 해소하지는 못한 것 같다. 그들의 주장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지만, 동시에 바로 그 점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총여학생회가 연세대학교라는 특수한 학생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여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주장에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 직장에서의 차별이나 성희롱,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출산휴가와 부족한 보육시설, 가정 내 폭력과 가사노동의 부담 문제 등을 생각해 보면 말이다.

하지만 그곳이 ‘명문 사학’ 연세대라면 과연 어떻게? 연세대는 흔히 여성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여성차별의 현실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탐구하는 장이라고 상상된다. 연세대학교의 여학생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학할 거부당하거나, 학점에 불이익을 받거나, 특정 시설

한편으로는, 여학생의 경험을 단지 생물학적인 차원에 가두는 것이야말로 한계로 지목될 수도 있다. 가령 여대생들이 재학 중 체감하는 가장 큰 차별은 구직활동시의 장벽인데, 대학생이 구직자로서 나서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는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학내 여성주의 운동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대학과 사회가 동떨어진 공간처럼 보일수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대학에서의 경험을 토대삼아 사회로 발을 내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학생이 커리어우먼으로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교육과 경험이 필요할지를 고민하는 것 또한 총여의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리더’를 앞세운 기관 주도의 여대생 커리어 교육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상에 순응하면서 소외된 다수 여성들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반(反)여성주의적인 것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그러나 보다 정직한 방법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상을 파악하고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면, 여학생들의 사회 생존권을 요구하는 학내 여성주의 운동이라고 존재하지 말란 법도 없다.

여성주의를 도매금에 넘기지 말라.

마지막으로 재차 논란을 일으키는 여학생휴게실(이하 여휴)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자. ‘논지방 사건’을 촉발시킨 1차 원인은 하필 논지방이 졸업앨범 야외 촬영지와 가깝다는 점, 그리고 당일 예기치 않게 비가 왔다는 점이다. 여학생들은 주어진 권리를 심분 활용하여 논지방 여휴로 향했고 이를 바라보던 남학생들은 일단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논지방 처마 밑으로 숨었을 것이다. 여휴가 만들어진 계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남학생들이 “학내 어느 곳이든 남학생 휴게실”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과방, 동아리방 등 기존 학내 자치공간이 주로 남학생 선후배 관계에 점유되어왔다는 사실 또한 변화를 겪었을 수 있다. 특정 학내 집단에 소속되지 않으려는 ‘아웃사이드’ 대학생이 늘어났고, 남학생이라 할지라도 자치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이는 소수가 되었으니, 이처럼 원자화된 그/녀들을 품기 위해 남녀를 가리지 않고 휴게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거듭 나오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삶의 개인화와 중립적 공간의 부상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매마침 시대적 분위기를 타고 신촌 앞거리의 각종 프랜차이즈 커피숍들로 수 놓인다. 너에게도 나에게도 그 어떤 공동체에게도 귀속되지 않는, 합법한 권리에 따라 잠시 빌린 ‘나만의 공간’을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절실히 요구한다. 대학 안에 만든다면 그 이름은 ‘휴게실’이 될 테지만, 대학에 마땅히 ‘휴식’을 목적으로 한 공간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최근의 것일 가능성이 짙다. 공간임대의 개인화 현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386세대(그들에게 대학은 우선 공동체적 연대의 공간이었을 테니까.)도 있을 것이다. 끈대 짓 말라며 반항해도 좋다. 학생 휴게 공간 확보를 두고 학교와 싸움이라도 벌여라. (마침 백양로를 파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깐.) 대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책임을 무조건 여성주의에 돌리는 것만은 삼가 달라. 일단 총여학생회와 성평등센터는 엄연히 다른 조직이다. 여성주의는 통합된 주장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성찰해 나온 질문들로 이루어진 어떤 사상적 경향일 뿐이다. 상대방의 삶의 조건을 고려하지 못한 언어는 누군가의 마음을 형용어뜨릴 수 있다. 그로 인한 오해가 제때 해소되지 못하고, 상상된 타자를 향한 무분별한 적의로 확산되는 과정만은 막아보고 싶다.

by. 왜가리

이용을 금지당하거나, 학생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당하지 않는다. 연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명백한' 여성 차별의 예를 생각해 보자면, 종종 문제화되는 성폭력 사태 정도일까? 하지만 이러한 사태는 대개 여성차별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가해자 개인의 인성이 문제인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즉 소위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자면 연세대학교에서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오히려 연세대학교는 총여학생회와 생리공결제도, 여학생 휴게실, 성평등센터 등 여학생을 위한 온갖 제도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공간에 가깝다.

이처럼 호 총여가 주장했던 총여의 존재 의의가 충분한 호소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정책이었던 여학생 복지도 큰 호응을 얻기는 어려웠다. 연세대학교의 여학생들은 사실 총여가 제공해주는 '실질적 여학생 복지'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동안 총여가 제시했던 여학생 복지 정책, 이를테면 자궁경부암 예방주사와 산부인과 검진 할인, 생리대 및 스타킹 공동구매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다. 즉 총여학생회가 꼭 그런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학생 개인이 자기 비용을 좀 더 들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학교 밖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왜 하필 총여가 나서서 여학생 복지를 해야 하는가가 먼저 해명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러한 사업들은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남녀가 똑같이 학생회비를 내는데 왜 여학생에게만 더 많은 혜택을 주느냐는 의문만 증폭시킬 뿐이다.

그렇다면 호 총여가 처음 등장하기 전에는 어땠을까?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더 예전에 있었던 총여학생회들은 기조가 달랐다. 후자는 차별이라는 단어를 비교적 상식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면, 전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상적으로 차별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상황들을 여성주의라고 하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제제기하는 것을 총여의 존재의 의이자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다(매년 이름과 주요 정책은 바뀌었지만 큰 틀에서의 기조는 유지되었으니, 이들 총여학생회를 통틀어 편의상 여성주의 총여라고 지칭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들 여성주의 총여는 호 총여가 빠졌던 함정에는 빠지지 않았다. 상식적 수준에서는 이미 올바른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총여학생회라면 그 상식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차별의 문제를 지적해야만 무언가 의미있는 활동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주의 총여도 매년의 임기 내내 무관심과 불만, 비난의 목소리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였다. 가장 큰 문제는 총여학생회의 활동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너무나 난해하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총여가 호 총여와는 달리, 여성의 차별에 대해 누구나 동의할 법한 상식적인 이야기만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은 상식적으로 보아 별 문제가 없는 것, 혹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에 더욱 주목했다. 그러다보니 어떤 문제를 다룰 때마다 매번 왜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아야 했다. 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당장 자신이 처한, 일반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해결하기에도 늘 바빴기 때문에, 그런 설명까지 일일이 듣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이를테면 학점, 스펀, 취업, 학자금, 연애 같은 문제들 말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성주의 총여가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를 등회시킨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런 일반적 문제를 일반적이지 않은 관점으로 바라보아서 낯설게 느껴졌을 뿐이다. 예를 들어 요즘 대학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연애' 관계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자.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내는 것도 차별이니, 평등한 관계를 위해서는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호 총여처럼 데이트 성폭력의 예방에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성주의 총여는 이러한 문제들의 이면에 주목하여 수많은 질문들을 던졌다. 이를테면 남성이 왜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그때 여성은 어떤 드러나지 않는 비용을 부담하는지, 여성은 왜 남성의 스킨십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지, 연애라고 할 때 왜 당연히 하게 이성애 관계만을 떠올리는지…… 등등.

후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들인데 꼭 이런 식으로까지 문제를 삼아야 할 필요는 무엇인가? 실제로 연세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과 1년 전에 여성주의 총여 선본이 호 총여 선본과 경선을 치렀을 때, 압도적인 표 차로 패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총여학생회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의기구이므로, 이러한 패배는 곧 여성주의 총여의 존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의문에 대해 여성주의 선본 측에서도 할 말은 있다. 지금은 상식에 포함되는 수많은 차별 사례들도, 누군가 그것에 차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문제제기하기 전까지는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았었다. 예컨대 남성이 임금노동,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되던 시대에는 더치페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사리에 어긋나고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답은 유권자 학생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올해 학생회 선거에는 아무 총여학생회 선본도 출마하지 않았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여성운동'으로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의 공감을 얻고 싶어했던 호 총여학생회는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 활동을 계속할 동력을 상실한 듯하다. 학내에서 여전히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 중 자신들이 총여학생회를 해 보겠다고 나서는 학생들은 없었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아마도 총여학생회가 어떻게 해도 좋은 소리 듣기는 어려운 곳이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그 와중에 학내에 떠돌아다니는 총여학생회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며, 오히려 점점 심해지고 있다. 누군가는 총여의 존재에 점점 무관심해져가고, 다른 누군가는 총여가 제 할 일을 못한다며 남학생의 선거권/피선거권을 달라는 다소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그래도 학내에서 총여학생회라는 기구가 지금 당장 사라지지 않는 듯하다. 정해진 절차대로 비대위가 구성되고, 내년 봄에는 재선거를 치른다. 그때는 누구라도 출마하기만 한다면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총여 선거를 살펴보면, 당선일 때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는 선본의 성격을 막론하고 언제나 찬성이 압도적이었으니 말이다. 총여학생회의 투표권을 가진 여학생들 중 다수는 그래도 총여학생회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 재선거에서 감히 총여학생회의 자리에 도전하는 선본이 있어 당선이 된다고 해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여학생을 비롯한 학내 다수 구성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총여는 학내의 모든 여학생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만장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지지와 관심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호 총여와 여성주의 총여의 장점을 절충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해결법은 각 입장이

호(好) 총여의 흥망성쇠에 대한 어떤 가설

극단에 치우쳐 있다는 이유로 다수가 반감을 느낄 때나 쓸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반감을 보이는 일부 '남학생 일동'은 아마 총여가 무슨 활동을 하든 그 반감을 없애지 않을 것 같으니, 어쩌면 총여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이 답일 수도 있겠다(그들이 바라는 대로 남학생이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는 총여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총여 학생회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총여에 무관심한 다수 여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그 돌파구는 총여학생회라는 형식 밖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총여가 지닌 대의기구로서의 의미와 권한을 생각해본다면 그 형식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직 학내 자치공간과 총여학생회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부디 내년봄에는 그 돌파구 비슷한 것이라도 찾아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by. 물고기

최근 3년간 연세대학교의 총여학생회는 비슷한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연세 호(好), 연세 호 TALK, THE 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총여학생회들을 통틀어서 편의상 호 총여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이 글에서는 호 총여의 그동안의 행적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가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을 통해 검증하거나, 호 총여 측에 문의하여 직접 확인해본 적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번쯤 들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설의 타당성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 총여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동력은, 바로 호 총여 이전의 총여가 주장했던 기조에 대한 보수 개신교 세력의 반발이라는 것이고, 그동안 호 총여에는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지닌 학생들이 다수 참여해 왔습니다. 호 선본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특정 종교에 편향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호 선본은 후보의 종교가 기독교인 것은 맞지만 그것과 선본의 기조는 상관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기조를 살펴 보아도 특별히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합니다. 하지만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호 총여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페미니즘을 기조로 하는 총여학생회가 있었습니다. 이 총여에서 꾸준히 해 왔던 활동 중 하나는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중심주의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별이분법이란 사람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 혹은 여성과 남성의 두 가지로 나누고 두 성의 차이를 절대

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성애중심주의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만이 유일하게 정상적인 관계, 혹은 적어도 가장 보편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표현이 좀 생소할 뿐이지, 사실은 생소하고 어렵고 할 것도 없이 모두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전제들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성소수자 이슈가 문제화되면서 이러한 전제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성소수자 이슈는 한국의 보수 개신교계가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올해 있었던 차별금지법에 대한 조직적 반대 운동이나,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의 공개 결혼식 오물 투척 사건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러한 적나라한 혐오는 보수 개신교회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한국의 개신교는 사회적으로 '개독교'라는 지탄을 받으며 지속적인 교세 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내부 개혁의 움직임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오히려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이 더욱 강화되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소수자라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지요.

하필 성소수자가 표적이 된 이유는 물론 내부의 교리적인 근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소수자가 한국 사회에서 공격하기에 가장 만만한 존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는 비정상이고 자연적 질서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 페미니즘이라고 불리는 입장들 사이에도 서로 관심사나 관점이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꼭 이러한 입장을 가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총여학생회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했던 이유는 이들이 여성 차별의 문제가 성별이분법 및 이성애중심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 차별은 비단 여성뿐 아니라 성소수자 등 다른 다양한 범주의 소수자 차별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한국 보수 개신교의 교리에 따르면 자신들이 고백하는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성소수자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모든 이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교리가 교회 내부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성소수자 혐오만큼 강조되지 않는 것은 한국 사회에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한국 불신자국'을 외치는 길거리 전도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개신교 내에서도 일찌감치 쫓겨나고, 사회적으로도 전혀 공감을 받지 못합니다.

25대 총여학생회 <더 호>의 집행부원과의 인터뷰

- 여성주의(들), 파악하는 대화의 기록

거의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한국 개신교회는 이러한 사회 전체적인 인식에 편승함으로써 교회 내부뿐 아니라 외부의 지지까지도 상당 부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내의 기독교 학생들이 처음 호 선분을 조직하고 높은 지지율로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위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 학생들은 총여학생회라는 공적인 조직이 자꾸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중심주의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누구보다도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미 신앙을 기반으로 탄탄한 조직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부감을 새로운 선본이라는 형태로 드러낼 수 있는 역량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총여학생회 선거에 나가면서 노골적으로 성소수자 담론에 반대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이 아닌 선본으로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에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존 총여학생회의 페미니즘 기조와 성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학내에 이미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페미니즘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추구하며 성소수자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수 학생들의 지지를 얻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 선본이 당선되었습니다. 기존에 총여학생회를 이끌었던 세력은 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반이었던 총여학생회라는 공간과 물적 자원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 왔던 페미니즘 운동은 학내에서 큰 타격을 입었고, 특히 성소수자 담론을 통한 문제제기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제기가 사라지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호 총여를 만들어냈던 가장 큰 동력이 사라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니다. 호 총여는 기존 총여의 기조 대신 남녀의 조화와 평등, 실질적 여학생 복지 등을 주장했지만, 선거 때 얻었던 압도적인 지지에 비해서는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총여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함은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마 호 총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호 총여는 순조롭게 3선에 성공하며 이런저런 사업들을 계속해 왔지만, 결국 올해 선거에서는 선본을 내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글이 제시한 가설에 의하면 호 총여는 초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중심주의에 문제를 제기하는 선본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호 총여에게 심심한 축하의 인사와 함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by. 물고기

* 인터뷰 본문의 대화 순서는 주제별로 재배치된 것입니다.

인터뷰를 열며

스티그마: 이렇게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대화를 하고 싶었던 이유를 앞서 말해볼게요. 자보는 저렇게 불고, 선거는 저렇게 안된 것이 지금의 상황인데요. 학내 여성주의자 친구들 그리고 더호라는 총여학생회가 각각 부딪친 난처함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싶었어요. 활동 공간이나 지향점이 상반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인터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나뉘면 좋겠습니다.

총여학생회를 둘러싼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25년 간 지속되면서 많은 변천사가 있었죠. 특히 2011학년도 선거에서 퀘스처닝과 연세호 선본이 출마를 하면서 총여학생회에 대한 다른 기대들이나 다른 방식들의 해석들이 크게 드러나게 되었었는데, 이제 3년이 흘러 선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금 한계에 부딪혔다는 혹은 새롭게 나아갈 지점들이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해요. 실제 더호를 했던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 1년간의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총여학생회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더호: 저는 여성주의와 총여학생회에 대한 매체가 나오는 것은 너무 좋아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호라고 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현재 총여학생회가 더호이니까 더호에서는 어떻게 현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정도로 인터뷰를 생각했습니다.

<더호>라는 총여학생회, 우리는 정말 평등한가?

더호: 총여학생회 후보자 혹은 집행부를 정말 관심이 있고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느끼는 친구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학기 때 여성주의 모임 간담회를 진행 했고 다른 학내 여성주의를 고민하고 공부하는 친구들과의 연결점들을 찾고자, 반성폭력 문화제까지 함께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든 단위들이 다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함께 무엇을 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느낍니다. 그럼에도 선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 안타깝구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현시대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해요. 여성혐오, 여성이라는 것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회. 그 이전보다 현재는 더 그렇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껴요.

스티그마: 이전보다, 라고 한다면 왜일까요?

더호: 이미 평등하고, 우린 똑같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구요. 지금 총여학생회 하나의 선본을 보면서 아실 수 있듯이 그냥 온라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것들이 실체화해서 오프라인까지 확장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이 힘이 있는가와는 별개로 여성운동, 여성주의자 친구들의 동력이 약화되는 것도 사실인 거고, 올해 초 총여학생회 폐지론이 돌면서 연세대학교 안에서 역시도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었죠. 예상은 해 왔었고 언제든지 계속 이야기들이 되어왔던 내용이지만, 근데 또 이제 그렇게 엄청 큰 영향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총여학생회라는 대의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정말 평등한가? 평등을 수치로만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여성의 삶을, 여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무엇이 차별인지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거죠. 그런데서 나오는 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찌 됐든 남성과 여성의 대결구도라는 성별구도를 가지고 가고 있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남성성을 과시하거나 정말 뛰어난 여성이 되거나를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죠. 여학생들의 권익이 행사되었으니 똑같다고 착각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 현실은 정말 보이지 않고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알게끔 하고 그걸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겠죠.

저는 '극단적 페미니즘'이라는 표현을 듣고 이들에게는 페미니즘과 극단적 페미니즘 간의 차이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냥 싫은 거고, 이 표현을 해서 프레임화 하는 거죠. '너네는 여기 속한 애들이야 너네가 잘못 땀어'라고 규정지어버리고 글을 쓴 거죠. 오히려 저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들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극단적 페미니즘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좀 고민이 많아졌어요. 전 여성운동이 대중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에게는 이것도 버거운 상태인 거죠.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여학생회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극단적 페미니스트인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듣고 느낀 건 이들에게 대중사업을 더 많이 해야 한다. 한 명 한 명 더 만나야 하고,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 나가야 한다는 걸 좀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사실상.

스티그마: 2011년도 연세호가 처음 나왔을 때는 여성주의라는 단어를 피했었잖아요. 그때 쟁점이 '총여학생회가 여성주의를 해야 하는가'였고 그런 의문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구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운동이라는 다른 쟁점을 가지고 다른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학내의 차별이나 혐오와 마주친 경험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질적 여학생 복지에서 여성운동으로 변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성평등 같은 큰 기조는 공통된 점이 있으면서도 다르게 설정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더호: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연세호와 연세호복과 더호가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다르기 위해 노력을 했고.

왜냐하면 정확하게는 저도 뭐라고 표현하긴 어려워요. 여학생 복지를 위해 총여학생회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설파동이라고 하는 것.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의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러려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총학생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빠를 수도 있겠죠.

왜 학생회라고 하는 체계가 남성중심적이라고 말해요. '이게 왜 남성중심적이야? 왜?'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죠. '왜 총여학생회가 필요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를 여전히 가부장적이라고 하고 남성중심적이라고 하고 너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그렇게 느껴? 저는 중선권위 하면서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게, 그 안에서 다섯 명 중에 저 혼자 여자거든요. 그리고 선본장 세 명 다 남자예요. 수치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생회라고 하는 체계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걸 이끄는 사람은 능력의 유무보다는 남자애들이 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여전히.

스티그마: 그러한 여전히 유효함으로부터 총여학생회라는 대의기구의 필요성도 연결 되어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더호: 이 표현은 저희 집행부 안에서도 갈리는 표현이긴 해요. 총여학생회라고 하는 단체가 존재하는 것이, 이진 루트 자료집이나 이전 자료집에서도 나와있는 것들이지만, 단순히 여학생의 수의 문제가 아니라 소리가 나오는 통로가 총학생회일 때 여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한 성격의 총여학생회라고 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집행부 안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봐야 하느냐 라는 말들도 있긴 하죠.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설명해야 하느냐? 그냥 이정도? 표현에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얘기하다가 막 막히는 느낌이기도 해요. 총여학생회의 역할과 범위를 정하게 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고대 서강대 서울대의 경우 총여학생회의 형태는 아니잖아요. 총학생회 산하 위원회 형태죠. 근데도 왜 총여학생회의 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요. 총여학생회가 단지 여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존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체적인 학생운동 자체의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그 첫 번째 타겟일 뿐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복지라는 아젠다를 총학생회가 아닌 학교에서 한다면 총학은 존재할 이유가 없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총여학생회에 사람이 없어서 출마하지 못하는데 위원회로 가게 될 경우 과연 그게 유지가 될까? 그게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자치기구로서 어떻게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반성폭력 운동(1) 성폭력 대책위의 성과와 한계

더호: 이번 일년을 하면서 가장 크게 맞닥뜨렸던 게 성폭력 대책위예요. 올해 대책위가 굉장히 자주 소집 됐었어요. 그만큼 성폭력 대책위까지 올라온 사건들이 많아졌고 중재가 되지 않는 사건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성폭력 대책위에서 재가 소위 미친년이에요. 학생-학생 사건일 때는 몰랐는데 학생-교수 사건일 때의 교수님들의 방어가 정말, 네 시간 다섯 시간 했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선생님들은 '뭔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성폭력이야?'

다 이거야, 말하는 모든 게, 학생-학생 사건일 때도 '그래 맞아, 근데 여자애가 도대체 기킬 왜 간 거지? 다 이진 거예요. 성폭력 대책위는 제 인생을 바피 놓은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앞뒤 다르고, 말에 빠가 있고, 정말 정치더라고요.

스티그마: 이거 막 대책위 비하인드 스토리로 끝까지 대책위 이대로 안 된다?

더호: 그래도 성폭력 대책위에서 이번에 안건 상정을 두 개를 했어요. 하나는 국제 캠퍼스 전문 상담원 배치, 두 번째는 사건 공개가 학칙에 나와 있잖아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일주일 동안 게시한다' 그 조항이 있는데 전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공청회에서 나왔던 게, 사건 몇 건과 몇 회 정도는 공개해서 경각심을 알리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학칙을 잘 지키자라는 것이 됐어요. 국제캠퍼스는 이게 필요하다고 총장님한테 회의에서 일단 얘기가 된 상태라고 했는데, 화중이 실제로 되는 것과는 다른 거겠죠. 계획이 예산을 받아야 하는 거라서, 교직원

한 명 늘리는 게 너무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했던 게 치료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이 계시야 하지 않겠나. 제한된 예산 안에서 선생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예산을 좀 더 늘려달라는 것도 얘기가 됐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해결해나가기까지의 어려운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성평등 센터와 상담실이 정말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사건을 처리하고 학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보다도 힘이 필요한 거구나.

스티그마: 사실 사건처리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 않아요. 학생단위에서 그런 사건을 해결해나가고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그것을 총여학생회의 몫으로 남겨두는 그런 게 분명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총여학생회장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반성폭력 운동의 구체적인 사건에 참여하고, 조언을 하고, 그것이 업무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때 그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힘들이나 고민은 없는지, 보람되고 성과들이 있는 반면.

더호: 사법절차를 밟지 않고 왜 학교 안에서 해결하느냐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학교 안에서도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과 총여를 통하거나 비대위를 꾸려서 처리하는 것이 나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성폭력 대책위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힘이 될 수 있고 함께 그 과정을 이겨나가는 포지셔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총여학생회가 문제제기를 하고 이야기하는 단위가 되길 바라고, 사건을 해결하는 전담기구가 된다면 역할이 에메 해지는 거죠. 그것이 총여학생회의 역할인가? 왜 투표까지 해서 뽑은 대표기구가 그 역할까지 해야 하느냐? 저는 오히려 성폭력 대책위에서의 학생 위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폭력 대책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스티그마: 총여학생회에서 보이지 않게 참여해온 사건들이

많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학교를.

반성폭력 운동(2) 논지당 사건에서 반성폭력 문화제까지

더호: 사실 성평등 상담실이 많이 노출되고 거론되고, 그랬잖아요. 소원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논지당 사태, 사태라고 부르잖아요. 원인이 복합적이라고 생각해요. 1번은 어휴, 어휴는 있는데 왜 남휴는 없는가. 2번은 논지당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멘트, 3번은 그 이후 교수와 학생 간 관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건데, 이 세가지 모두에 불쾌해지는 사람, 하나 혹은 두 개만 불쾌해지는 사람...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1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2는 비판하고 3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총여가 쑥 들어가서 논지당을 방어하면 혼잡해질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고 소통해야 할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설득될 거라곤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 보다는 반성폭력 학칙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게 왜 성폭력적인지 얘기하려고 했어요.

스티그마: 그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호: 네, 그래서 너 때문에 사건공개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너는 자꾸 그게 성폭력이 아니라고 하는데 무엇이 성폭력인지에 대해서 너가 아직 모르는구나. 우리가 문화제를 통해서 알려줄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생산적이고 재미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참여해서 사과 먹고 끝내는 것일지라도 문구를 한번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스티그마: 문화제 기조 처음에 봤을 때 의문이 들었거든요. 가해와 피해, 그에 따르는 공동체의 책임을 왜 사과로 은유했을까. 반성폭력 문화제뿐 아니라 호의 여러 행사에서 상처-사과의 메타포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정의로운 형상화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에서 이것을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궁금했어요.

더호: 반성폭력 문화제를 준비할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성폭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 뭔가 무거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맞나? 낙인찍기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 안에서, 그래서 성폭력이라고 하는 단어의 무거움을 좀 떨어뜨리고 싶었어요.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발생하고 있고 너 역시도 나 역시도 피해자이고 가해자이다 라는 맥락을 가져가고 싶었어요. 기존에 사과를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불가능한 대화(1)

학내 소수자 정치와 반차별운동,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스티그마: 2011년도 선거 때 언론이나 정책토론회에서 사용되었던 표현 중에 '소수자는 다수의 여학생들에 우선될 수 없다' 라는 게 있었죠. 슬로건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표현이 소수자 정치를 총여학생회가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나타났는데요. 더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호: 사실 소수자 감수성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은 있어요. 장애하우든 성소수자하우든 그것과 무관하게 소수자 감수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총여학생회가 소수자 사업을 전담하고 굉장히 큰 포선으로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티그마: 얘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은 더호에서 생각하는, 총여가 대의제 안에서 가져가야 할 부분이 여성을 대표하는 기구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총여와는 별개로 소수자를 대의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하는 것이냐 그런 상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 총여를 상상할 때는 소수자 정치와 반차별운동을 함께 가져갔었는데 더호에서는 여학생을 위한 기구로서만 총여학생회를 가져간다면 그런 정치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더호: 있을 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과 총여와의 연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공동공약에서 장애인권위원회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양한 소리들을 모아낼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것은 필요하고 아직 학교 안에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연대라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총여학생회가 모든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변하는 것은 사실 잘 모르겠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을 해나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총여라고 하는 우리의 활동 방향과 기조 안에서 필요하다고 되는 것이 있다면.

스티그마: 근데 소수자 정치라는 것은 소수자 당사자와 연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학생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학생 안에 여학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하면서 총여학생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에는 다양한 결이 있다. 지향하는 삶의 형태나 가족 형태,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 장애 등의 차이들을 포함 해서 학생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은데요. 총여학생회에서 그런 시도들을 하다가, 이제 총여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특정한 여학생들에 집중하게 되었잖아요. 그러한 정치가 필요함에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기구 혹은 동의하는 기구,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럼 그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더호: 저는 그래서 연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걸 전담하거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앞서 말씀해주셨던 학생이라는 범주가 다를 수 있음, 그 모든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단위를 만들고 뗄하고 뗄하고...

스티그마: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걸 지향하는 바가 아니고.

더호: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스티그마: 우리도 궁금해요.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더호: 지도 참, 어찌 됐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그것에 집중하기 이전에 총여학생회의 이름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 가 제일 큰 것 같구요. 그 외에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나가는 것은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권위원회를 함께 진행했던 부분인거고.

불가능한 대화(2)-1 차별 받는 여성

스티그마: 총여학생회는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우선과제다 라고 생각했을 땐 그 아래에 판단이 깔려 있었잖아요. 여성은 남성과 차이를 지니기에 양성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총여학생회로서 할 일이다라는 판단.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할 순 없죠. 그것과 상대적인 다른 의견들이 있죠. 그렇다면 양성평등의 기조 안에서 이해되는 여성의 삶이라는게 뭘까? 그게 궁금했어요. 총여학생회의 다른 의미 중 하나는 공간이었어요. 기존에 학내에서 공간을 찾지 못했던 학생들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일 텐데, 더호가 생각하는 양성평등의 기조에 동의하는 학생들이 어떤 식의 여성의 삶, 남성의 삶을 상상하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지름요. 양성평등을 전제로 했을 때는 여성의 삶, 여성의 몸, 규범을 이야기할 때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더호: 저는 편안하게 제 얘길 좀 하면, 저는 예전부터 특히 대학에 와서 크게 두 가지의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하나는 대학생이 되고 나서 생긴 거고, 다른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 같아요. 나이가 어리다는 거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고 두 번째는 여자라는 거였어요. NGO 활동을 1년정도 휴학하고 할 때, 어렸어요. 21, 22살 때였으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였나면 애가 뭘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도 모르는 거부반응들이 있었구요.

되게 사소한 일인데 같이 있던 친구는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기숙사에 종선관위 포스터를 붙이러 갔어요. 경비아저씨한테 이리저리해서 붙이러 들어왔어요 라고 하니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굉장히 예쁘게, 정중하게 말했죠. 한 세 번은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같이 간 친구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아 그러나, 된다는 거죠. 제 콤플렉스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둘의 차이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분이 어르신이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대한민국, 연세대학교라는 공간에서 살아 가는데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한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예민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아마 옆에 있는 친구는 모르겠죠. 왜 내가 말했을 때 이 아저씨가 듣지 않았을까에 대해 고민하지 않겠죠. 저는 고민하고 화가 나지만 애는 화가 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이 정말 사소하지만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와서 자유로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그런 것대들에 의해서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불편했어, 적어도

여기 안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동의가 있으니까요, 아예 없다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거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상황 속에 살아와서 나도 모르게 그런 언행들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보다 좀 덜하겠죠. 그런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좋아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것이 되게 어색해서 불편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불가능한 대화(2)-2 여성이어야 하는 차별

스티그마: 저는 방금 사례로 드셨던 그 감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디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궁금증은 그러한 감각들이 확장될 수 있는, 상상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왜 거기서 선을 그을까?였어요. 특히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성소수자 혹은 남성/여성 성별이분법으로 포섭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그런 감각은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차별의 궤를 같이함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선을 그을까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선택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까.

디호: 그게 저희끼리도 되게 의견이 갈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스터디를 함에도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 중 하나인데, 그 안에서 하나의 합의를 이야기할 만큼의 우리 안에서 충분한 그런 것이 어려운 것 같고, 저 스스로도 그래요. 제 안에서 아 이거구나, 저렇게 표현해야 하는구나, 내 안에 어떤 확신, 설명해낼 수 있는 무엇이 저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것을 어떤 기초로 가지고 나아가는 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연세로나 호목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지난번 정책 토론회에서도 플로어질문 대다수가 이런 내용이었죠. 성소수자에 대한 디호의 생각은?

스티그마: 그게 되게 쟁점이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디호: 그렇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혹자는 너네가 기독교 계열이어서 이것을 거부하느니 하는 얘기도 사실 많은 거 알고 있고, 그 전에는 성적 지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었는데.

스티그마: 그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계열이라서 언급하지 않는다면 반대한다.

디호: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기독교 기독교 하는데 사실 죄송스럽죠. 나는 그렇게 홀리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되게 홀리한 친구들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전 교회를 간지 너무 오래되가지구... 하 저도 어려워요. 제 안에서 여전히 제가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은 궤까지 가지 않았어요.

스티그마: 내가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과는 어쨌든 다른 의미 안에 있다는 건가요? 왜? 어떤 게? 그렇게 다르다고 느껴지세요. 그 두 개의 이야기가?

디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고, 저의 생각을 설명해내는 것에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아요.

스티그마: 선거 때마다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 걸 거치면서도 아직 답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건가요?

디호: 사실 제가 선거를 한 건 그 전엔 선본장을 했었던 거고, 이번에 정말 총여학생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건 제 입기가 처음이다 보니, 처음에 참여할 때도 그런 명확했어요. 사실 총여학생회라는 게 저한테 되게 거리가 멀었구요. 내가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 때,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보단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간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입학하고 2년동안 주로 가지고 가셨던 활동이 팔이성애중심주의였기 때문에 그보다는 여전히 이 학내에서도 불편하고 힘든 여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총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다 누가 필요하다 도와달라고 해서 하게 됐죠.

스티그마: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여학생으로서 불편하다 라고 느낄 때 요구되는 규범, 어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와 정상성을 벗어난 몸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디호: 다르나.

스티그마: 네 그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같이 얘기할 때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 많이 얘기해주신 것 같아요.

불가능한 대화(3) 대중에게 다가가기의 딜레마

디호: 저는 좀 이 용어라 그래야 되나, 벽을 다 같이 허무는 게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선본이 없음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여성주의도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 있잖아요. 각각 다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고,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다고 느껴요. 그런 것들이 벽이 허물어지고, 함께 이야기해 나가면서 토론할 거 토론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어찌 됐든 제 안에 큰 건 대중운동이라는 거. 여성운동은 대중운동이어야 한다면은 게 저한테는 가장 커요.

스티그마: 그 때 그 대중이 어떤 거예요?

디호: 정말 말 그대로 대중이예요. 특정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그룹에 의해서만 이것이 동의되고, 어떻게 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아요. 차별들이요, 이런 모든 운동에 있어서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이 대중화 되어야 진짜 사람들의 인식 밀바탕이 되는 건데, 운동이라는 것을 인식의 수준을 높인다, 확장한다라는 개념으로 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좀 함께 갈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내고 싶어요.

스티그마: 그때 대중은 사회에서 발언력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어쨌든 소위 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겠네요.

디호: 그렇겠죠. 근데 모르겠네.

스티그마: 그랬을 때 딜레마가 생기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운동을 해야지만 당선이 될 수 있고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인식들로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배제가 될 수 있잖아요.

디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말하는 의미는, 저는 대중을 움직이는 건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수단에 따라서, 방법론에 따라서 대상이 대중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요. 확장될 수도 있고 좁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용어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럴 때.

스티그마: 말하기의 방식이요?

디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확장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스티그마: 근데 그게 말하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디호: 본질적인 것까지는 다다를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의 상황에선 시작조차, 이야기조차 힘들다고 생각해요. 일단 거부감으로, 이따만한 철벽이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용어의 벽까지 생기면 대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이 사람과의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겠으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과연 전달할 수 있을지. 나는 말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에 절대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대중운동은 벽을 낮추는 일이고, 그것부터 쌓아가는 것. 본질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의 문제. 함께 갈 수 있는 문제, 어찌 됐든 대중운동은 좀 같이 가야 한다?

저는 중운위, 학생대표자들과의 벽이 좀 허물어짐에 대해서 되게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중운위를 단 한번도 빼먹지도 지각하지도 않았어요. 무엇이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거나 할 때 정말 날 잡아갈까 두려운 상태. 거짓에 다들 씌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들 얘기해주는 게 '자기는 총여가 어찌구 저찌구 이런건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싫은 사람이 말하면 안 들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면 들리는 게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벽을 허무는 작업들이 총여라서 더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스티그마: 그러면 마무리를 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인터뷰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통의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총여학생회는 존재해야 하며, 여성주의 정치를 해야 한다.
2. 학내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가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지니고 실제적인 자원과 힘을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 학내에서 여성주의 공간과 언어를 둘러싼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

2007년도 총여학생회 폐지 논쟁, 2011년도 총여학생회 경선, 그리고 총여학생회 선분이 나오지 않은 지금, 이 세 차례의 순간은 여성주의 총여학생회라는 이름을 단 이야기의 주요한 결절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들마다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은 세 가지였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여성운동을 하는 아들과 여성주의적인 대화가 과연 가능한가? 라는 회의가 이 매체를 만들게 된 동력 중 하나였으며 이 회의는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여성주의적인 토론을 할 능력이 없는 총여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라는 회의로 이어진다.

지난 3년간 '여성운동'의 언어를 비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강연회로, 선분으로, 매체로, 자보로, 기타 등등으로. 그리고 인터뷰마저 시도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대화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싫다거나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모른다고만 말하기 때문이다. 언제쯤 그 '진정한 소통'이라는걸 할 수 있는 걸까? 중운위원들과는 친해질 수 있지만 학생들의 목소리에 답하기는 버겁다는 것일까?

'여성운동'의 판타지. 더호가 말한 것-지향한 것-의 자기당학

총여는 성별권력관계에서 소수자인 여성을 대의하고 있지만, 소수자 사업을 하고 싶지는 않다? 소수자 정치를 하는 기구가 존재한다면 그곳과 연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것에 집중하기 이전에 총여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무엇일까, 소수자 감수성을 개인적인 자질로 갖출 수는 있지만 소수자 정치를 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더호의 판타지를 정교화하여 이들이 생각하는 연세대학교의 구조를 밝혀보자. 우선 더호는 소수자 얘기에는 거리를 느끼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다수의 여학생을 대의한다고 믿고 있다. 과연 그럴까? 예전에 총여가 ABCDEFG를 했다면, 더호는 A만. 그것도 이거 저거 다 빼고 하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뻔뻔의 정치학! 총여라는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다 빼버린 결과 총여에는 이제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여성이어서 받는 차별과 여성이어야만 하는 차별이 그토록 다를까? 호가 3년 해서 그나마 총여가 잠깐만 소리로 들어갔다. 총여가 있는지, 발하는지 모르겠고, 총여 폐지론이 다시 나왔다. 이것은 정후다. 장벽을 낮추는 대중운동이 총여에 관심이 없거나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더호가 함께하고 싶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여학생들에게 좋을지는 의문이다.

모를 수 있는 권력. 무지를 존중할 수는 없다.

여성이라는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성소수자 여성을 향한 차별이 어떻게 다른지 3년 동안 고민해 보아도 모르겠다? 할 의지도 있었고 실제로도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성별권력관계에서 여성이 차별 받는데, 이 성별권력관계가 남성중심적이긴 하지만 이성애중심적이지는 않다?

이것 또한 이미 평등하고, 우린 똑같다는 착각이다. 이것은 모르고자 하는 의지이자 모를 수 있는 권력이다. 특정한 판단을 무지로 포장해서 비판을 거부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성별권력관계에 의한 폭력에서 우리는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인걸 알았는데, 이 성별권력관계를 깨트리기 위해 뭘 했는지 검증된 것이 없다. 연세대학교 안의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지만, 성소수자는 제외되어 있다. 그 와중에 '여성의 차별을 느끼지 못한다' 라고 생각되는 남성들과 함께 가려 하고 있다. 단순히 여학생의 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수렴하는 통로가 이성애중심적일 때 성소수자 여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 모르고 싶은 것일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 학교 안까지는 아니라니, 총여는 학교 안으로 소수자 정치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기구란 말인가? 이런

것들 또한, 동시에, 정말 사소하지만 큰 거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학교라는 반여성주의적인 공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문제제기는 계속된다. 왜 이 공간은 차별을 용인하는가? 왜 학교 본부는 성폭력 사건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조차 항상 미완성으로 남겨두는가? 대책위는 왜 항상 그 모양이고 학칙은 왜 항상 무시되는가? 피해자의 분명한 요구조차 집행할 수 없는 대책위, 대책위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학칙이 무슨 힘을 지닐 수 있는가?

그리고 총여학생회라는 공간마저 위태롭다. 왜 이제 총여는 반성폭력 사업만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왜 그 안에서 남성중심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규범들이 재생산하는 성폭력 각본을 깨트리는 찬란한 이야기들이,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켜내는 힘있는 목소리들이, 일상을 살아내고 전복하는 피해-생존자들의 삶의 풍경들이 쏙 빠져버렸는가? 왜 그 자리에 성폭력이라는 모호한 상처와 공동체가 보내는 사과만 남아있는가? 왜 반성폭력 운동을 이야기하는 총여가 성소수자를 향한 폭력에는 이토록 관대한가?

예전에 총여학생회는 폐쇄적이고 난해하다고 비판받았다. 이제 총여학생회는 다가가느라, 소통하느라 힘이 다 빠져버렸다. 이제 총여는 소수자 정치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 연대를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총여와 연대하고 싶어하는 소수자가 없다. 총여는 3년간 비판에 침묵함으로써 연대의 가능성 자체를, 소수자의 존재 근거 자체를 부정해왔다. 총여는 장애학생과는 연대하지만 성소수자와는, 학내 여성노동자와는 연대하지 않는다. 장상성을 지닌 연세대학교 여학생으로 느끼는 소수자성은 감각하지만, 비장상성이 소환하는 소수자성은 감각하지 못하는 선택적 소수자 감수성.

그러하여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원을 그린다. 여성주의를 얘기하지만 다수가 아닌 소수의 얘기에 빠져서 본분을 잊은 애들 vs 대중적이고 다수를 존중하며 상식적인 애들이라는 '프레임'은 그대로다. 이것은 비규범적 변태들 vs 조화로운 여성과 남성 간의 대결로, 맘에 안 드는 건 다 해체하는 애들 vs 전통과 권위를 지키려는 애들로 변주된다.

3년 전 여성주의 총여를 부정하며 실질적 여학생 복지를 외쳤던 연세호에서 학내 여성차별을 위해 싸우는 더호가 되기까지, 이것은 호가 총여학생회라는 경험을 통해 다다른 성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그 자리에 다시 서보니 같은 차별과 더 많은 차별에 관한 이야기는 사라졌고, 하나의 차별만이 학내에서 유일하게 보편적인 차별이 되어있다. 한때 총여에서 가능했던, 총여라서 가능했던 활동들은 이제 학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치자, 여전히 이 총여에서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일이 있기에 이 공간은 유효하다고 치자, 이제 한동안은 이렇게 잘 굴러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는 혹은 우리는 들리지도 읽히지도 않는 불가능한 대화를 집요하게 시도한다.

꼭 총여일 필요는 없었다. 내가 타자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던 여성주의의 공간이, 항상 총여는 위태로웠다. 총여라는 공간 안/밖은 언제나 찢어지는 중이었다. 여기든 저기든 어쨌든 여성주의자들은 계속 거주해왔다. 그래, 총여에서 좋았고 총여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어떤 공간의 상실과 부재, 그 이름을 둘러싼 루머들 곁에서 공동의 삶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내가 혹은 우리가 목적해야 할 전부이다. 어디에서든, 누구와 함께이든.

나는 혹은 우리는 반대한다. 선언한다. 존재하기 위해서 긍정한다. 긍정하기 위해서 부정을 부정한다. 한없이 무에 수렴하는 존재들과 '연대'하며 스스로 존재라고 믿고 있는 허상들을 내려찍는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임시적인 결론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예언에 가까운 이 말이 힘을 지니기 위해서 삶은 지속되며 죽은 말로부터 어긋나는 삶에서 다시 말이 터져 나온다. 그러므로 여성주의의 말하기의 힘은 전달되고 소통되는 것에만 있지 않다. 여성주의의 정치는 편지이며 일기이며 정치에 관한 말하기여야 한다. 왜 이것이 정치가 아닌란 말인가? 나를 배신하고 상처 입힌 말에 오래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떠나야 한다.

II.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어쨌든 내가 있는 곳은 최후의 변경이며 나는 최후의 하늘을 보고 있는가 봅니다.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운명이 뿔뿔해가는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은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일까’ 묻습니다.

우리는 다른 의사의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죽었다’는 말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Edward Wadie Said

서서 자는 나무야

[기고] 늙은이의 슬픈 기록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중간계,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의를 살아내는 법

— 그 '이후'의 퍼즐맞추기

[기고] 어느 반차별 활동가의 방향의 기록

—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마지막. 살아있다는 것이 대단하지는 않다. 오히려 그는 무심하다. 오늘 아침에 눈이 떠지니 역시 살아있었다. 일어나서 집 밖을 나와 걸었고, 그렇게 살아진다. 사실 채기가 돈다고 해서 공사 먼지가 대단한 것은 아니다. 먼지에서 태어났고 먼지로 우주를 떠돌테니까. 나무 살해가 대단한가? 우리가 게걸스럽게 집어, 먹어, 해치워, 삼키는 타자의 죽음들. 하수구에는 무수한 별이 있고 천구에는 무수한 시체들이 흩어질 따름이다. 그것이 본래적인 인간의 도시이다. 세상이 어지럽다면, 흥진에 고마워할 일이다. 덕분에 발밑도 머리 위도 보이지 않으니까. 시간은 공간을 찢길 것이고, 그 말끔한 얼굴에 배신을 느낄 것이다. 명료하다.

마지막, 은근히 유지한 면이 있어서, 역사라는 말에 자주 반하곤 했다. 길의 역사를 생각한다. 흙이 있었을 것이다. 백년 전에 선교사들과 나이린 학생들이 흙탕물을 피해 종종거렸을 한양과 경성의 길이었고, 몇십년 전에는 이 길의 보도블록을 깨 경찰에게 던졌을 것이다. 그런 짓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콜타르를 부었다. 추우니까, 더우니까, 자연이 은총으로 길은 곧 닳았고 가름 만난 논처럼 갈라졌다. 그리고 또 다시...

싫은 내가 배어졌다. 배어서 죽었고 죽어서 다시 살았다.

마지막, 그래도 역시 화가 난다. 대체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양, 그런 기만은 너무 지저분하다. 창조란 단 한 획으로 끝이다. 폐허를 탐색하고 공간을 살해한다. 이를 다시, 새로운, 창조, 라는 말로 덮는다는 것은 가련한 모독이다. 그들은 그 말 만큼은 쓰면 안되었다. 백수광부처럼 하나 남은 나무는 머리가 됐다. 대학에는 총명한 명칭이들이 들어와서 얼굴을 길들이는 연습을 하다가 머리가 하얗게 셀 채로 다시 한번 총명한 명칭이가 되어 졸업한다. 우리가 대체될 수 있어요? 상식은 사고처럼 들이 닥친다. 뇌를 빼버린 느낌으로 다시 살아간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짚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녹슬어가면 서, 인간의 역사는 본디 잔혹하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대굴대굴 생존할 수 있다.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 잔혹함이 새로운 것인가, 모르겠다. 다시 한번.

마지막, 나는 누군가들이 지키려고 했던 공간의 당사자였다. 그에 살았고, 친구를 사귀고, 비석과 나무의 유래를 알았다. 안경을 고하지 않았다. 그저 잠시 떠나있었다 돌아오니 사라져있었다. 일년 만에 밀린 건물은 천년 고성의 옛터처럼 남았다. 풍경이 기억이 파과를 소화해낸 것처럼, 그 황폐함은 그 나름대로 아름다웠다. 아주 잠시의 정적일 것이다.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새 건물의 부피가 번듯하게 차오르면, 그제서야 난 눈물 흘리게 될까? 공간은 기억의 혈관에 흐를 뿐, 당신 언어의 지문이 나에게 남듯이, 잃은 채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by. 水

늙은이의 슬픈 기록

이것은 학교를 다닐수록 학교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는 이의 슬픈 기록이다.

그거 알아? 끊임 없이 자동차들이 흘러 들던 정문 앞 도로가, 60년 전에는 개천이 흐르던 자리였다는 거, 지금은 상가들로 빼곡한 자리는 그저 끝없이 펼쳐진 논과 밭이었다는 거, 학생들은 근처 작은 가게에서 막걸리를 사다가 눈두렁에 주저앉아 술을 마셨다는 거.

누군가 그랬어. 이 학교만큼 시원하기 나쁜 장소도 없었다고. 학교 가운데에 땀 뚫린 길이 있는 탓에, 경찰에게 토끼몰이 당하기 딱 좋았다고. 30년 전의 청송대에는 나무가 하도 백백해서, 달아오른 이들이 숨어들기 딱 좋은 장소였다는 거. 지금의 사람들은 청송대에서 한가로운 거닐며 자연을 느껴왔지만.

9월의 늦은 밤 귀가길 지나가던 남문에는 빨간 색 락카로 '철거'라고 쓰여 있었어. 이 학교에서 그 빨간 색 글자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기에 나는 놀랐지. 남문과 그 옆 수소 스테이션이 철거되다니, 백양로에는 펜스가 쳐졌어. 펜스 너머에서는 독수리 상이 철거되고, 나무가 뽑혀나가고, 흙이 파헤쳐진 것을 볼 수 있었지. 어떤 사람들은 펜스에 그림을 그렸고, 학교는 그 그림을 덮어 버렸어.

펜스 너머로 볼 수 있었던 파헤쳐진 흙은 붉고 건조했지. 의문이 들었어. 백양로에 심어진 나무들을 아낀다면, 나무의 삶의 터전인 흙이 그렇게 황폐해 질 때까지 어째서 내버려둘 거지? 언제부터 나무가 학생사회에서 '민주주의'나 '인간성의 회복'의 상징이 되었는지?

사람들은 백양로에 대한 자신들의 추억을 꺼내어 놓기 시작했지. 어떤 이들은 백양나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지만, 사실 백양로 가로수의 대부분은 백양나무가 아닌 은행나무였어. 50여 년 전 백양로에 세워져 있던 은행나무들이 벌

레와 꽃가루 알레르기 등*의 이유로 잘려 나갔기 때문이었지. 백양로를 지키자면 외침들 사이에서 항상 자리잡고 있던 단어를 기억해? 백양로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불러냈던 주제는 연세인이었어. 사실상 백양로야말로 '연세의 상징'이었지. 어떤 사람들은 연세인이라면 다른 개발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 '이 나라의 지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연세인들은 모여서 '착한'개발을 말해야 하는거야?

사실, 나는 높이 펜스가 쳐지고, 중장비가 돌아다니고, 나무가 뽑혀나간 살풍경한 모습이야말로 이 학교에 가장 어울리는 풍경이라고 생각했어. 매끈하게 아스팔트 깔린 백양로, 인조 잔디가 깔린 대운동장, 커튼월로 빛을 반사해 대는 신중도, 학교 곳곳에 자리잡은 네모 반듯한 건물들, '연세인'들이 환히 웃으며 거니는 백양로의 모습 사이로 지워진 간수 많은 이들의 모습들과 목소리들이 나에게 소중했으니까. 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공기마저 식어버린 밤의 학교를 좋아했어. 밤의 학교에서는 풀 냄새와 물 냄새가 낮보다 더 강렬하게 피어올랐고, 학교 곳곳에 숨어 있던 슬픈 비밀들이 가라앉은 밤공기 틈새로 내보내는 말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

나무가 베어지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나는 묻고 싶었어. 당신들은 한낮의 태양 밑 아래서 분주히 생을 이어가는 나무의 시간을 눈치채 본 적 있는지. 늦은 밤이 되면 나무도 달아올랐던 자신의 시간을 정리하고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을 느껴본 적 있는지.

by. 숲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중간계,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의를 살아내는 법 - 그 '이후'의 퍼즐 맞추기

그들, 우리, 당신들이 배회하는 신촌 거리에 흐르는 말들에 대해서, 환영받지 못하는 질문에 대하여. 안녕, 안녕하세요, 대의 민주주의를 '살아내는' 우리들.

1. 대학

대학은 디스토피아 위에 존재할 수 있는 유토피아다. 입시 경쟁의 생존자들은 탈태하듯 지성과 지성인의 정체성을 전유한다. 엘리트¹ 대학(Elite university)의 일원이 되어 다시 쓰여지는 자기 서사에 애착을 느낀 적은 없는가. 대학에 오기 전까지 중등교육과정에서 숨죽여야 했던 '일반' 학생들의 기억은, 극기의 과정이거나... 잊혀져야 할 대상, 규율의 기억, 탈출해야 했던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이는 한 때 전부였던 투쟁이 말석에 밀려나 켤 당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귀하의 수능 성적은 상위 0.X%입니다. 혹은, 강남대성의 빌보드 리스트, 완벽한 내신과 논술, 스펙을 맞추기 위한 AP와 각종 스터디, 임원 경력, 경진대회, 서울대식, 고대식, 연대식 환산 점수와 달해가는 문에 자신을 끼워넣으려 발바닥친 기억들. '도라이'들을 뚝고 싶어만 들어갔다는 입학사정관제와 대안적 경력도 이 디스토피아에서 결코 자유롭지는 못하다.

전장에서 온종일 살아남아 대학 문을 통과한 이들과 지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이들, 이 상반되어 보이는 얼굴들은 기실 한 사람의 생애 얹혀있는 충돌, 야합, 공생을 동시에 드러낸다. 디스토피아를 뚫고 온 생존자들이 안전지대에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상황. 이 디스토피아-유토피아의 단절을 잇는 고리는 알갭게도 '입시 생존자'들과 '지성인'들이 공통적으로 뿌리내린 엘리트리즘이다. 본래적인 의미에서 대학의 기능이 정, 재, 학의 장에 엘리트 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그 엘리트 정체성의 핵심은 세상을 바꾸어 낼 수 있다는 권력 감정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아주 이상한 상황도 아니다. 자기기만² 을 물어두면, 내가 죽었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대학은 여전히 '안전'하다. 세련된 제스처, 조소, 현실에 칼 겨는 언어들이 부유하는 비현실적인 공간. 이 방수된 공간 속에서 부질없이 보이는 일에 목숨을 거는 시간이 가능해진다. 어떤 측의 학생들은 입시를 반복하듯 커리어를 쌓아올려가고, 어떤 측의 학생들은 비정치성을 조장하는 정치성에 분개하고, 어떤 측의 학생들은 26년 전, 민주-광장이 이어질 수 있었던 전설을 열렬히 그리워하면서.

2. 사각형

민주도 죽어가고, 민주가 성립할 수 있는 광장도 죽어가고, 사람도 죽어가고, 의식도 죽어가고, 정치도 죽어간다. 라는 쓴 목소리 혹은 설익은 목소리. 학생사회는 이에 빈번하게 호명당하지만, 학생사회가 대관절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학생회 임원들? 활동단체의 멤버들? 그 주변인들? 내부인? 세련된 유저들? 아니면 학생사회는 신중도 대열탑설 b구역에 있다, 학생사회도 공론장도 가능성도, 그 많은 말들이 흩어지지한 한 장의 종이로는 헤아릴 수 없는 사각형의 삶들, 창문들에, 책상에,

1 '엘리트'라는 인명에는 너무 많은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다. 오로바의 학벌 피라미드의 상위에 서서하는 스튜어트, 고위 국가 관료나 전문직 종사자의 명칭임을 획득해온 고지 계층지. 다른 간의 유학생활을 지원받아 유망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학생, 대중을 조직하고 계몽하여 변혁을 이끌어낸 (대중) 혁명 지도자. 혹은 그냥 학벌에 기댄 수 있는 자. 이 '엘리트'들의 중첩된 얼굴들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2 뚫고 있다. 창문의 틈에 붙어 있는 피사체는 내가 그럭스려했던 적은 없는가?

강의실에, 자취방에 무수하게 살아움직이는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못한다. 경멸은 짙어진다. 대중(mass)이라고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이 따가움 없이, 고민 없이, 의심 없이 행해지고, 열람실 안 사각형들의 삶은 정말 덩어리(mass)가 되어버린다.

3. 권리와 복지 - 소비자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

권리이다. 종교가 회의되고, 이상이 회의되는 시대를 지나 민주주의만이 불가침의 가치로 남았다. 민주주의의 라이벌이었던 정체들은 이제 '전근대'적인 것으로 기각되는데, 그 경쟁에서 피어올랐던 중요한 고민과 비판들은 일상에서 상당부분 망각된 것처럼 보인다. '민주주의적'이라는 말은 최고의 찬사이며 그 자체가 하나의 양상한 목적이 되었다.

비묘한 것은 이 정체가 현실에서 물화될 때, 권리 담론을 경유하여 패턴화되어 작동한다는 점이다. 우선 '나'를, 그 상대와 율령을 분해해보자. 우리가 스무해 남짓을 살아내면서 자연스레 체화된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지성인이 아니라 소비자일 가능성이 높다. 선거에 있어서 누가 학교 당국에게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누가 더 나은 복지-후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누가 당선을 위해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유권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위해 주판알을 뱅기게 된다. 선거는 후보자 쇼pping이 되고 스펙과 공약은 선택의 근거이다. 대표자가 되고자 출사표를 던진 이들은 오히려 이 프레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정치적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부응하며, 마케팅의 역할까지 수행한다. 민주주의가 소비로 소비되는 방식은 무엇에 달아 있는가. 매 선거가 복지제도와 인프라 경쟁으로 흐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4. '다수'의 권리

정치는 무수한 장에서 영향력을 파급, 관찰시켜가는 과정이다. 근본적으로 힘의 불균형한 상태에 '도달해야' 정치는 가능하다. 현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통용되고 있는 다수의 원리, 동등한 개인의 선택이 쌓여 수적 우월성을 점한 '선택지'가 정당성을 취하게 된다. 다른 선택지들은, 혹은 그 선택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상상력은 '정당하게' 사라져야 할 것이 되며, 그게 바람직한 정치(인)의 윤리이다. 패배자의 가능성은 소각하기로 하자.

하여, 모든 것이 피선거권자와 선거권자의 선택 문제로 압축된다. 이 논리는 투명해서 순수하기까지 하다. 이후에는 선출된 대표자에게 나아가 읍소하면 되는 것이다. 요약,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리로 환원되고, 정치는 투표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더 큰 '권리'를 얻어내겠다는 선택으로 귀결된다. 문제는 다수자의 이름으로 공(公)에 대한 사유를 오히려 억제하는 상황이다. 정체성 정치가 이에 맞닥뜨렸을 때, 여성주의는 특정 이익집단의 난해한 언어도단으로 치부된다.

5. 정체성 정치라는 조류

평등한 구성원들 간 합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한 공리라 받아들였을 때에는 의사의 조화와 균형을 찾아내겠다는 목표가 전제되어 있다. 대표성은 제도를 강요한 증명의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존재의 기표를 흔들겠다는 운동

성과 선택이 내 존재를 대표한다는 원리의 권력이 부딪혔을 때, 그 산란 속에서 어떻게, 최적의 의사결정 균형점은 가능한가? 정당과 중립적 점이지대를 상징하는 논법은 지나치게 안일한 것은 아닌가? 비극은 합의로 해소될 수 있는가? 싫든 좋든, 차별을 연료로 하는 정체성 정치의 해류가 대의제 정치에서 소화되는 과정은 '우지끈'의 연속이었다.

중심성을 대적하고 대신 경계에 천착했던 소수자 정치가 대의제에서 존속할 수 있는 방식은, 안타깝게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맹목하게 총여라는 형식은 위태로웠다. 사실 총여학생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모든 의사와 의문을 만족시키는 결정은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다. 대의제는 '합의'의 내용 자체보다는 의사를 가지치기하는 과정을 합법적으로 보증하는 영역에서 작동하는 까닭에, 근대의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개개인의 '의사'와 '소통'을 매개하는 매체³로 탈신성화 했을 때, 왜 그 정치적 주체인 민(民)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지 실마리가 어렵게 잡힌다. 대의(代議)가 대의(大義)를 만들어내는 방식들은 전형적으로 알고리즘화되어 있고, 이에는 분명하게 잡아낼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게' 내포되어 있다.

사멸했다고 믿어지는 과거의 유산으로 돌아가서, 페미니즘은 무명한 말하기를 뒤집었다. 아니, 뒤집고자 했다. 불투명한 말, 깨지가는 말, 터지는 말을 대신 끌어올리고자 했다. 균형이 공허한 수사로 전락할 때, 조화가 억압하는 그 무엇들, 바둑판에 놓인 대적수는 한 수가 아니었다.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혀갔다. 그리고 여성주의의 문제들에서 막히고 뻗도는 질문들—해체와 도전과 방어와 전략이 교착되어 있는 모순들, 구성주의 전통에서 여성을 탈영토화하려 하지만, 한편으로 여성이라는 상징적 범주와 입을 무대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6. 이념형이 상투화된 전제로 번식하는 순간

하나 — '나와 너(우리)와 너, 나와 그(우리)와 그들' 사이의 균형 관계가 순수한 상호 주관성을 가지는다. 대화가 무제한적으로 교환되기 위해서는 어느 연표자에게도 특권이 주어지면 안된다. 의사 소통 행위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모든 정보와 지점, 주장, 규약들이 공평하게 배분될 때 순수한 상호 주관성이 성립된다. 이러한 균형 관계가 존재하는 한, 의사소통 자체의 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의사소통을 굴절시키는 못할 것이다.⁴

둘 — "소통을 통해 변화를 드리고 새로운 학생사회를 드리겠습니다. 공문장에 모입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가장 인기있는 자원의 레퍼토리는 공문장과 소통, 변화일 것이다. 사회문제는 공문장에서의 허심탄회한 논의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 그리고 소통에 대한 맑은 신뢰, 하지만 주창자인 하버마스조차도 공문장을

3. 혹은 하이든.

4. Habermas(1970), "Towards a Theory of Communicative Competence," Inquiry: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Philosophy, Vol. 12, 371쪽. 원문(1970) "무엇을 하버마스를 넘어서", 교보문고, 271쪽에서 재인용.

현실 비판의 전거로서 하나의 '이념형(ideal type)'으로 내세웠다는 사실과, 그 전제들의 '배관함'에 대해 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그 공론장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동시에, 누가 걸려져 나가는가. 의사소통 능력을 과신한 소통의 정치: 각 계보에서 말들의 소용돌이가 뿔뿔다 죽어나가는 결과로 치달을 뿐이다. 한 사상가의 대안이 절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공론장과 투명한 소통의 '가능성'은 호소와 선전이 아니라 현 조건의 의식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불가능성을 철저히 직시하지 않고서는 가능성을 사유할 수 없기 때문에.

7. 냉담, 냉담에 대한 냉담.

학생사회는 무엇인가. 학생사회라는 연표를 둘러싸고 충추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몇 부류이다. 학생회 행정실무의 관계자였거나, 한 정치적 계보의 후손이거나, 학생사회가 학생회에 독점되는 것에 반발하는 사람들. 한 측은 '학생회가 하는 일이 없다'는 상투화된 비판에 반발하고, 한 측은 '학생회가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고 일갈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ETC: '지금, 여기, 우리의 공동체'는 절실하고 필요한 것 같은데, 과연 중도 안의 학생사회 일원들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은 그저 신자유주의를 체화한 주체로서 학생사회의 시민권을 포기한 덩어리-대중인가? 정치적 무관심은 이미 하나의 정치적 선택은 아닌가? 학생회-학생사회 사이의 간극이 거기에 있다. 학생사회를 호명하기 위해서는 연세대학교에는 과연 학생사회가 존재하는 지⁵, 왜 우리에게 '학생사회'라는 공간과 단위가 왜 필요한지, 그 기저의 사유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가 여기에서 명명 가능하다면, 현재 '우리'의 공통적인 기반은 연세대생이라는 멤버십과 캠퍼스의 물리적 영토뿐인지도 모른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유령의 냉담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8. 당신이 물려받은 말들에 대하여, 환영받지 못하는 질문에 대하여.

흔한 말, 만약에 당신이 대학에서 얻어갈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과 의문의 재능을 버리는 것이다. -유토피아를 잊은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를 잊은 유토피아, 독해하고 싶지 않은 것은 독해하지 않고, 보고 싶은 것을 본다. - 우리⁶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치-주의를 강박적으로 이상화하는데 익숙하지 않은가, 모반을 낭만화하는데 안주한다면 청춘을 다 바쳐 잣잔 속의 돌풍을 만들어낼 뿐, 당신이 물려받은 말들에, 그 지반이 떠다니고 있는 바다를 보았으면 한다. 여성주의가 숨어 붙어있을 수 있다면, 혹은 숨어 붙어있을 가치가 있다면, 그는 '연세대학교'를 되는 교양인들이나 똑똑한 신여성의 지적 전시물이 아니라, 내가 선 안전지대를 안전하지 않게 만드는 사유의 틈이어야 한다. '우리'라는 이름이 가진 다정함이 아닌 전혹함

5 '사회'라는 말을 둘러싼 감정은 다양하다. 모두 '세계'의 냉정과 여성 그리고 그 가족을 넘어선 위상에서 권력을 분배해 나가고 있다. 키토스는 사회가 사회학의 담론 안에서 그다지 강조되지 않은 개념이라고 주장했으며, 만은 한 가지 개념으로서 일관성도 없고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을 대개 사회라는 말이 내이션 그리고 국민국가 체계와 어떻게 결합되어 왔는지를 묻고 있다. 빌리그는 '사회학의 자기 참여에서 핵심을 이루는 '사회'는 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출현했다'고 말한다. 존 어러DOI2,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글어날 물리, 휴버스트 출판, 22쪽.

6 이 오자적 패들 역시 우리를 앞향에 있어-우리를 해체하여 힘과 동시체, 무리라는 연표를 유지, 혹은 포기할 수 없는 교착점에서 고통을 쓰여했다는 점은 끝내기 전에 고백해야겠다. 글을 쓰다가 뭐가 축적되었는지 민첩 위험이 두 번 도졌다.

을 들여다보고⁷, 타자에 대한 성찰 없이 강박적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주체를 해부함으로써, 환영받지 못하는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문명이 됨으로써, 서로가 있었음을, 버를 같이 밟았던 기억, 내가 먼지바람에 사라져버릴 것 같은 감각을 잊어 버리지 않도록.

by. 누군가, 아마도 박애주의자

7 사회의 '우리'는 '소녀'라는 기호를 어떻게 이해한다. 소년이 아니다, 성인 여자가 아니다, 남자가 아니다, 침묵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에 대한 적정인 오프, 혐오와 감정의 일상화 왜 여기에 이진 여자를 - 양이와 타자가 호출되었는지? 왜 '우리'를 구축하는데 외계인의 존재가 필요한가?

어느 반차별 활동가의 방황의 기록 -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올해 5월, 책 한 권을 받아 들었다. 2년 전 내가 제작에 관여했던 책이었다. 책은 가벼웠고, 표지는 흑백이었다. (책의 이름은 『수신확인-차별이 내게로 왔다』이다.) 학내에서 활동할 때 대체로 자료집을 몇 권 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서점에서 유통되는 책이 활동의 결과물로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제작하는 동안 사정상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책을 작업하면서 느꼈던 내 소회를 이야기하려 한다.

책을 엮어낸 단체에서 2011년부터 활동을 했다. '복합차별 당사자의 생애 주기에 따른 차별 사례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채록하고 차별사례 보고서로 엮어내려 한다'는 기획을 우연히 엿본 것이 계기였다. 사람들이 모였다.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기보다는, 조금은 멀리 있는 듯한 사람들을 섭외했다. 원래의 취지대로 '복합차별' 요소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별의 요소가 두 개 이상인 사람들을 섭외했다. 복합차별당사자라 하면 웬지 범위가 좁혀질 것 같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단일차별 당사자를 찾기가 더 힘들 것이다.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질적 연구방법론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실제로 질적 연구를 하는 분을 초청해서 한 시간가량 교육을 받았다. 인터뷰 하기 전에는 웬지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뷰를 하고 나니 자괴감이 엄습했다. 우리는 '객관적'이었어야 했는데 정작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웃었다. 원래 질적 연구의 인터뷰는 한 번에 한 시간 정도 진행된다는데, 내가 진행한 인터뷰들은 두 시간이 꼬박 넘어갔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시 인터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걱정은, 우리가 모아 온 이야기들을 육하 원칙에 따른 복합차별 사례로 분절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 때문이었다.

사회에서 차별을 이야기 할 때, 그 모습들은 다음 나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낮은 임금을 받고,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주로 학력이 낮고, 주로 취약계층이며, 건강이 좋지

않고, 타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며, 폭력에 희생당하는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받아 든 이야기들은, 오히려 유연하게 차별의 틈새를 미끄러져나가고, 기쁨의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틈새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 모양새는 예상 외로 튀어넘는 것이었고, 튀어넘는 만큼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금, 돌아가야 했다. 차별은 정말로 모든 불행의 근원이며 없애버려야만 하는 절대 악일까?

'차별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주로 정체성이라고 부른다.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정체성들이 있다.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학력, 인종, 국적, 나이, 계층 등등. 한 가지 사례로 성별 정체성을 이야기해 보겠다. 통상적으로 성별 정체성에는 '남성/여성'만 이야기되지만, 트랜스젠더가 있고, 트랜스젠더에도 MTF/FTM, 수술/비수술이라는 명명이 있고, 트랜스젠더 외에도 시스젠더, 젠더퀴어, 젠더플루이드 등등 수많은 이름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들에 이름 붙이기(labeling)가 있을까? 물론, 자기 자신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본 일인지 간파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차별 운동을 하는 것, 더 나아가 정체성의 정치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이름표들을 꼭도 없이 달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많은 정체성들이 겹쳐져서, '나'라는 사람이 되는 건데, 나는 오히려 그 수많은 정체성이라는 이름들에 압도 당해 온 것은 아닐까? 어느 한 가지 정체성만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님을 알면서도, 저 사람은 이 요소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쉽게 단정지었던 것은 아닌지, 어떤 사람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식당에서 일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 그이가 채용된 임금을 받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게 되는 순간 바로 행복해질까? 장애인고용 촉진법으로 인해 한 장애인이 고용되고, '장애 인정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하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이

는 행복할 수 있을까?

반차별 운동은 이러한 '대상화'와 싸우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활동 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이미 어떠한 틀을 만들어 버렸고, 그래서 활동가들의 외침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가려워진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 예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체성으로 누군가를 호명하는 순간, 가려지는 수많은 결들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타격이나 공격이 들어올 때에, 그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취하는 전략이 있는데, 나는 다른 맥락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체성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격이 삭제되는 순간과 그로 인해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까지 차별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느끼는 답답함을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활동가들은 복합차별사례 보고서를 작성하려던 계획을 폐기하고, 이야기들을 재구성하기로 한다. 엄마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로, 대학 수업에서의 강연문으로, 친구에게 전하는 이야기로, 누군가와와의 인터뷰 기록 등등, 활동가들의 '집 없는' 말하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었다. 그 이들의 이야기 뒤에는, 이야기를 경청한 이들의 전언이 실렸다. 그래서 제목이 '수신확인'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띄우고,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한 기록들의 모음이다. 책은 차별 당사자들은 불행하기만 하다는 통념을 깨는, 자신의 정체성들로 인해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 잊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기도 했다는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누군가의 삶이 녹아 나온 기록이기에, 차별 이슈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의 힘이 덜 빠지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일 것이다. 정체성에 압도당해 할 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이들의 정체성이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차별의 기록만이 아닌 다양한 궤적을 남기도록, 긴 호흡으로 엮어 나간 책이다.

이 책을 엮어내는 과정을 통해 내가 왜 이렇게 반차별 운동에 매달려 왔는지에 대해 그나마 작은 실마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삶은 지난하다. 타인이 바라보는 나, 타인이 예상하는 나의 삶과 내 생각 사이의 괴리에 나는 자주 숨이 막히고는 한다. 내가 (여성이므로) 가족 가방을 좋아할 것이고, 내가 이성애자로서 결혼을 할 것이며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것이니 흡연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나는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나 또한 이러하고 저러한 전략을 취한다. 아직 그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존중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나를 이토록 괴롭게 만드는 누군가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마주치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좀 더 긴 호흡으로 나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엮어 놓은 이채로운 열 편의 이야기들을 당신 또한 읽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과 마주할 수 있기를, 그래서 더 큰 공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을 통해, 나와 타인이 마냥 단절된 존재만은 아니라는 것을,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따뜻한 전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by. 숲

III. 불꽃놀이

말말말 불꽃놀이

말말말 불꽃놀이

정체성 정치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경계들을 이야기하는 것 사이의 정치적 긴장, 여성 정체성을 재구성하는데 생물학적 선거권으로 환원될 수 밖에 없는? 정체성과 정체화는 달라. 분명히 달라. 인권의 정치와 보편성의 정치? 자유주의 인권 담론 끼임치하다. 연세대학교라는 학벌주의 공간 안에서 소수자 정치는 위선 아닌가. 솔직히 솔직히 여기니까 가능해지는 말씨름들 아닌가. 대의제의 판타지 안에서 소수자 정치가 가능하긴 할까. 내가 소수자 정치를 욕망하는 이유는 뭘까. '여성주의'로 발화할 때 발생하는 간극과 회의. 왜 나는 여성주의를 주장할까. 왜 기대하고 실망할까. 소수자 정치는 차별과 비극을 연료로 필요로 하나? 불행을 경쟁하는대로 흐르게 되나? 왜 학교라는 공간에 이런 걸 기대할까? 왜 포기하지 못하는가? 관심인가? 관심 끌고 살 수 없나? 고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 그 외부는? 다른 사람들은? 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공동체주의와 혼자 파스타를 끓이며 침잠하는 사이? 공간과 관계? 뻘뻘. 그런 비판 옛날부터 흔했어. 지나치게 사변적이다. 지적 허영이다. 지적 허영과 자기 만족이 왜 나쁜가. 지적 허영과 지적 호기심은 뭘 수 없는 관계. 내 피부에 둘러붙은 삶의 언어들. 인문학.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이유. 인문학 얘기하면서 도덕성을 다 차지한 거 같은 세상의 진리를 점유한 거 같은 그런 아저씨들 싫다. 난 인문학을 카페에서 인문학 운운하며 클래식 듣고 빵 뜯어먹는 사람들 유한계급 싫다 그런식으로 남이 청춘을 바치는 공부 소비하고 치장하고 모독하지 말아달라고. 아 왜 이렇게 싫어하는게 많지? 좋아하는 건 불분명한데. 사람은 차이를 싫어하는 것을 통해 자기 동일시할 대상을 찾고 스스로를 안다? 내가 아닌 것에 비추어 나를 감각한다? 여성주의의 문제들. 어떤 질문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질문이 사라지는가? 너가 말할 때 가끔 우지곤하는 것을 느꼈어. 대화가 우지곤 어긋나는 순간들을 각인하는 것.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말투로 생각하고 어떤 속도로 걷는가. 함께 있을 때 어떤가. 불편해지기. 편해지기. 혼자 조용히 졸업하고 싶은 마음. 그럴 수 없는 마음. 나 이제 총여 이야기 싫어졌어! 학생회 폭파시키자 학생회 사라져라 이 시를라크르들아. 너도 희망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 야 이 미친놈아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치료'는 타자성을 다시 특정한 정체성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거나, 혹은 다시 압살하는 작업은 아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폭력의 힘'이 헤게모니에 대한 일시적이고 공허한 파열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를 새롭게 열어 나가는 힘을 계속 이끌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념형으로서의 복지. 인권 담론과 보편성으로서의 복지? 복지와 서비스는 어떻게 다르지? 복지도 서비스 아냐? 복지가 복지가 되는 것은 공공성을 담지하기 때문에? 복지는 '사회'를 매개로 해서 작동할 수 있는 것! 사적 보험과 복지의 차이. 생리대 판 값에 사는 게 복지야? 인간 권리로서의 복지. 다시 보편성으로 회귀하는 거 아닐까? 정체성 탈각하는. 아 어렵다 어려워. 제도와 복지의 담론은 말들은 완벽한데 현실에 오면 뭐 하나 바꾸는 거 둘 하나 드는 것도 힘들고 할 수 있는게 사소해지는 인간으로서의 교육권이 등록금을 5프로 깎느냐 3프로 깎느냐로 와 버리는. 의미가 없다는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 아니 뭐 소수자 얘기하는 총여도 싫다고 하고 양성 평등하자는 총여도 싫다고 하고 그냥 애내는 총여가 싫은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존재가 불편한 거잖아. 총여에서 성소수자 운동을 하는게 싫은 걸까. 성소수자 운동을 하는게 싫은 걸까? 그냥 총여가 싫은데 소수자 운동까지 해서? 경계를 깨는 이야기를 끌어올리면. 위협이 되나? 불안해지나? 학생회가 할 일과 하지 않는 일? 지적 허세로서의 여성주의와 과반 공동체에 당장 필요한 여성주의? 여성주의를 구색 맞추기 위해 활동에 끼워넣는 것? 짜장면. 우동. 짬뽕에 이야 여성주의 군만두 하나 주세요! 경선이 되면서 선거에서 져고, 대의제에서 성립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호의 모델도 실패했고. 이제 생존 자체가 힘들게 될까? 난 이대로 갈거면 총여 없 어지는게 낫다고 생각해. 정체성 정치의 한계는 당사자주의와 비당사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벽? 동의하지 못하는 벽? 그것이 보편성-공공성으로 확대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가 설득이 안됐고 안되고 앞으로 안된다. 영~원히. >_< 그리고보니 당사자

운동, 총학에서는 왜 얘기 안했던걸까? 다시 한번,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소수자 정치는 가능한가?" 음부즈만 뭐 복유럽 스위스 각종 세련된 제도 끌고 오면 좀 나아질까? 수혈? 유럽은 늘 옳나? 프랑스에 이민가면 낙원이야? 너나 가라 프랑스, 인구를 줄여야해? 연세대학교라서 일찍 망한걸까? 오히려 다른 학교의 '선진적' 미래? 자유라는 말에 담긴 안일함? 왜 정치가 광대놀이로 전락했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상상력에 지배당하는 것. 누구는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누구는 자유주의를 경멸을 담아 말하네. 형제화, 학내 민주주의? 조합주의지, 학생 이익만 이야기하는, 불가능하다는걸 인정할 수 있는데 아나키스트는 아냐. 아 백년 전에 태어났으면 오히려 상상력의 여지도 있고 아나키스트를 했을텐데, 아나키스트가 가능하지 않은 시대라. 희망을 버려야 하나? 그런 정치의 가능성은 어디서 봐야 하나? 마을 만들기? 협동조합? 창조적 공동체? 중산층, 인텔리, 중년층의 향수와 판타지 투영된 것은 아닐까? 나네 진짜 마을 살아봤어? 살아보라 그래. 아~무것도 없어. (침묵) 대단적 가치를 내세우지만 2퍼센트가 안되어 해산되는 정당들... 정치를 계속 고민하고 싶은데... 나는 계속 고민을 안고 가게 될 것 같다. 세계 자체는 그냥 두고 부분을 만드는게 동의할 수 없다. 그들만의 섬, 찻잔 안의 돌풍이라는 거구나? 정당에 기대어 있지만 너는 이걸~인정하고~실지~않아~ 보편성의 재구성~? 차라리 국가 전복하자 그래! 봉기하자. 안됨. 모임. 결론 : 난 파시스트. 현실이 아닌 당위로라도 하고 싶다. 나는 싸워야 할 대상. 그런 권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구조를 바꾸려 해야지 모퉁이나 마을 섬을 만드는 방식 수용하기 어렵다. 거기 가서 놀 수 없어. 나와 어울리지 않아. 넌 왜 아나키 안하고 파시즘으로 왜 갔을까. 탈영한다는 말. 탈영하고 나선 어디로 가지? 바깥이 없다. 출구가 있다는 말. 출구가 있어야 한다는 말. 출구가 있을 것이라는 말. 그런 선언들. 그게 중요해? 말장난의 변주들. 정말 중요한 건 출구 이후의 세계 아니야? 우린 어디로 가지. 왜 이거 잡고 있나. 명언이 있어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주의자가 된다. 나는 다른 입장. 난 국가 전복 모르겠어. 전복되서 잘 될거 같지 않아. 맞아. 전복되면 더 디스토피아야. 기대가 없고 생각 안해봤고 떠돌면서 강 한 세상 살다 가는게 내 삶의 소망같은거야. 나는 위의 어떤 그런걸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단어 자체에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그 단어를 주로 쓰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싫었다. 저번에 내가 했던 얘긴데, 넌 운동권을 자처하는 자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진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 그 밝음이 싫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진 게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 어쨌든 자원이 있고... 모르겠어. 응 암튼. 난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내가 꼬여서 그런가? 뭐, 나는 꼬인 마음이 사회과학의 좋은 출발점이라 생각해. 솔직히 학벌이 있으니까 총여 학생회라는게 잠깐이나마 존재할 수 있었고, 연세대학교니까. 하. 그거 진짜 웃기지 않나 수능이랑 수시 스펙 맞춰 들어온 애들이 지성인 놀이 하는거. 딱 다 잊은거처럼. 우리나라 엘리트는 학원에서 만들어지잖아 명문대생도 고시도 의사도 외교관도 유학가는 사람도 지알이토를 보잖아? 정치가 아래로부터 권력을 차지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정말 디스토피아야? 아래로부터의 집권이 뭘때? 내가 집권하면? 권력을 갖는다는 게 집권으로밖에 독해가 될 수 없잖아. 지금은. 선출직이 갑이고, 선거를 통한 집권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건 불가능한건가? 아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싫은 이유는 거기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생각 안하고 말하는 거 같애. 공동체가 배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지 않고 있어. 와 내가 정답이다~ 이려고 있어. 나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개념이나 어떤 정의나 규정이나 호명이나 어떤 그룹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무언가를 배제할 수 밖에 없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것은 그룹이나 범주가 될 수 없어. 오. 기고 글 왔다. 기고 글을 보자. 메시지를 남겨. 내가 기억하는 백양로와, 백양로 개발 반대 운동에서 재현되고 소환되는 백양로의 기억이 너무 너무 너무 달라서 더 소외감을 느꼈던 생각이 난다. 대낮의 백양로는 전혀 걷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공사장에 세워진 천막에

는 내가 너무 안어울려서 절대 못들어갈 것 같았다. 뭐랄까 낮의 백양로와 밤의 백양로, 혹은 드러난 백양로와 이면에 감춰진 백양로 같은 느낌. 달의 뒷면. 그림자. 그늘. 선에도가 높고 아찔한 향기들과 그것들을 뒤덮어버리는 강한 향들. 여러 차원에서 태어나 동시에 배회하는 희미한 유명들과 지나치게 뚜렷한 사람들 등등. 그런데 좀 더 거리를 두고 보자면 4문단의 "의문이 들어." 부터 마지막 문단까지는 상당히 함축이 깊어서 좀 더 전개하거나 각주를 달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 그러니까, 나도 쓰겠어. 안녕. 가서 같이 놀고 싶은 마음. 잘 어울리지 못하겠고 가기가 어렵다. 나무를 애도하는 사람들. 비논리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뭐랄까 한편으로는 알고나서야 비로소 소중해질 수도 있다고, 갑자기 중요해지고, 다시 이야기의 풍경이 구성되고, 그 상실감을 설명할 근원의 언어를 찾아서 서로 흉내내고 말을 만들고, 사실 어쩌면 상실 후에 사랑에 빠지는 건 흔한 장면들이어서 어쨌든 사람들의 말들을 그냥 두고 지나치기가 아픈 점이 있어. 돌아가서, 당선 되지 않으면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당선이 안됨. 정체성 운동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운동이지. 당사자 주의 비판도 크잖아. 그럼 정체성 운동은 안 좋은 거야? 소수자 정치의 두가지. 1. 소수자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과 같은 압박 때문이다. 2. 소수자로서 나는 당신들을 대표하겠다. ex)최현숙 선본. 현실적으로 불가능. 짜장면 짜장면을 시켜야 하는데 어디서 시키지, 검색이 안 나와. 오.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배달백서 있다. 역시 역시. 역시 이렇게 복지지. 와 진짜 보편적인 복지다. 야. 여기 홈페이지 게시판에 생협 알바생이 불친절하다는 거의 민원센터인데, 생협 노동자의 감정노동은 어떻게 되는거지? 야 우동을 중국집에서 왜 시켜 중국집 우동이 진짜 맛있거든 이거 그냥 계란탕인데? 먹고 나니 살찐거 같아. 여성주의 괜히 공부했어! 응. 그래. 몸 긍정하기 어려워. 근데 좋다. 내가 생각하는 여성주의는 모여서 맨붕하면서 떠돌면서 맛있는 걸 먹는게 여성주의인거 같애.

여신과의 사랑이 끝난 후 우리는 어떻게 되는걸까.

시절이 지나면

지나간 글들은 추억사가 되는 것 같아, 사납고 다정한 입이 말했다.

누가 읽어줄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겠지, 라고 지친 입이 말했다.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라고 평온을 내는 입이,

개는, 너는, 바스라진 나는

자아를 완성하기 위한 여신이 필요했어, 여신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 찬미는 폐기되는걸까?

우리는 자국을 눈물을 부풀어 오른 상흔을 소리가 났던 글들을 부끄러워하게 될까?

난 건강한 사람이 싶어, 이 세계에서 건강하려는 절박함, 그 눈빛이 달는 얼룩들이.

독특한 척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내리찍으려는 고상한 제스처와

자존심을 위해서 남을 찢어놓는데 망설임없는 내가

사랑, 사랑, 아 나의 사랑아, 타성적일 바에는 노래어, 부디 자결해주세요,

물의 비린내에는 얼마나 질긴 비사들이 녹아 있을까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결연 혹은 신과.

너와 나의 말이 달아났다, 지문이 겹쳐졌다, 너는 양수를 나눠마신 형제였다.

간극이 있었어, 어떠한 밤에 잠근해가야 한다는? 괴리가 있었어, 날새를 수밖에 없는?

나를 찾기 위한 경로는 예정되어 있었어? 비대한 자아에 잠식된 우주가?

그대가 나와 동등한 걸음 가진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당신들의 삶들이 물려오는 장면을 견디지 못해

불안과 공포와 우울과 디스토피아와 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벌려온 발들과

패인 주름에 발라붙은 눈물과 모래처럼 달은 눈가.

사실 우리는 한 시절을 나갈 생각만을 하고 있었어, 다만,

늘어있는 새파란 젊음, 내 안에서 돌아나가는 괴물의 이름은 뭐지?

길을 돌아와서 얻은 하나는 의미를 애써 찾지 않아도 된다는 풀이집.

당신의 산란과 그 삼만한 고풍.

나는 한 때 내 안의 균열을 외면할 수 없었고

지금 당신의 비틀림에 초연할 수 없다고 말한다.

by. 박애주의자

epilogue

박애주의자 { 해야할 말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쓰여졌어야 할 글은 아니었다, 이만 졸업하러 갑시다. }

꿈 { 꼬음. }

물고기 { 여기에 하고 싶은 말을 써서 학내에 뿌려 놓으면 읽어주는 사람이 몇 명은 있겠지, 그것로 충분해요, 미련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을 거예요. }

박애주의자 { 오, 다정하네요. }

왜가리 { 왜가리는 어디에나 있어, 탐조를 하는 친구가 말했다, 왜가리 울음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뾰족한 부리에 눈을 맞추면 왜가리는 곧 날아가 버린다, 왜, 라는 질문이 닿지 않는 곳으로. }

아까리 { 희망을 갖지 않고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야겠다, 좋은 광신적인 사람, 이런 내가 되어야 한다. }

왜가리 { 하우들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qnadna }

삶 {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다가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죽어가면서 살지요. }